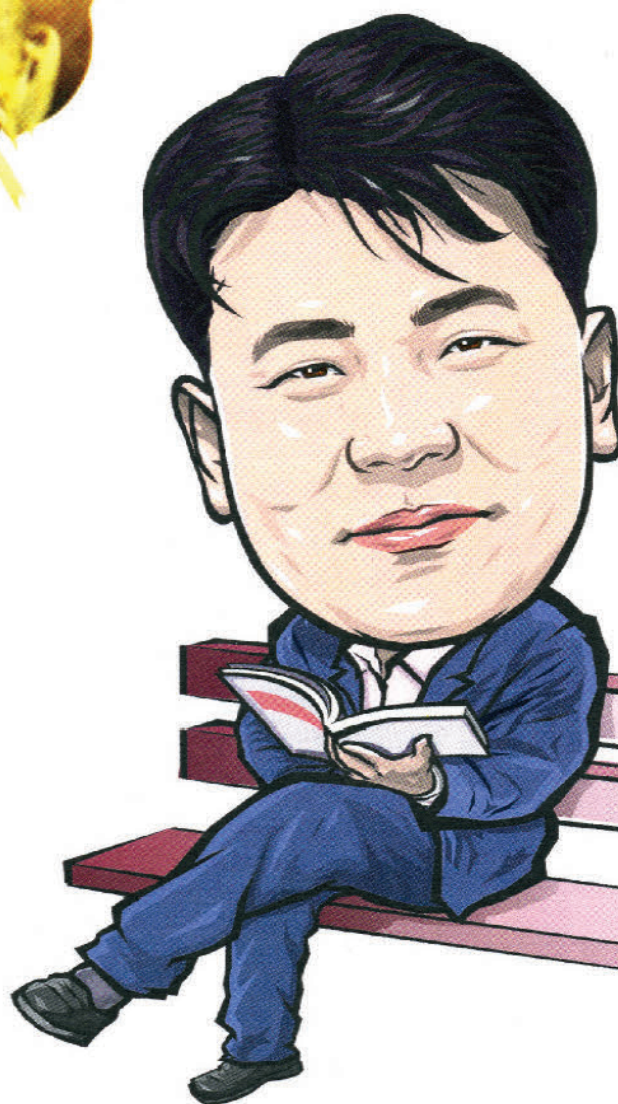


ECONet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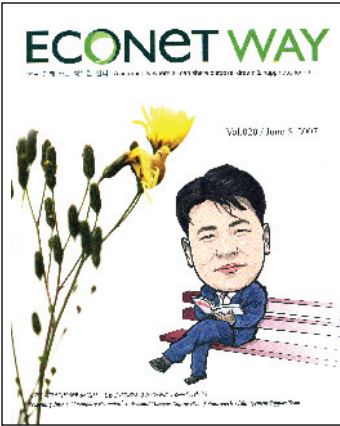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20 / June 5, 2007



이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네이처텍 경영지원팀의 우길종대리입니다.

Presenting June's "Exemplary Econetian" : Assistant Manager Kiljong Woo of Naturetech's Management Support Team



Cover Story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우길종 데리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The cover features a photograph of indigenous
wildflowers growing around Unigen's Russia
Farm and a caricature of June's "Exemplary
ECONETian," Giljong Woo.



ECONET Special

- 02 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세계 무대에 서다
- 06 웰니스 칼럼 • 당신의 웰니스(wellness)는 이번 여름에 시작됩니다
- 10 포커스 • 에코넷 창립 31주년 "또 다른 30년을 향해"

ECONETIAN

- 14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행복 파수꾼
- 18 고고우리부서 • 에코넷의 농장 소개
- 24 에코넷으로의 초대 • 에코넷 스피릿 주간
- 28 우체통 1 • 구보씨의 하루
- 32 우체통 2 • 우리가족 최고의 여름휴가
- 36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 네이처텍의 동호회
- 42 유니베라 한국, SBS TV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방영



ECONET Special

- 04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Stepping Up to the Global Stage
- 08 Wellness Column • Your physical wellness starts this summer!
- 12 Focus • ECONET's 31st Founding Anniversary 'Toward Another 30 Years'

ECONETIAN

- 16 Exemplary ECONETian • The Guardian of Happiness
- 18 Go! Go! Our Division • Introducing Farms of ECONET
- 26 Invitation to ECONET • ECONET Spirit Week
- 30 A Postbox 1 • A Day in the Life of Potbellied Novelist, Mr. Kubo
- 34 A Postbox 2 • Our Favorite Summer Vacation
- 39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 Naturetech Clubs
- 44 Univera Korea Featured on SBS TV Live Show 'Morning Wide'

Culture & Life

- 49 New Product Introduction •
Red Ginseng Tonic Gold &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of Univera Korea
- 53 Recommended Books • Harvests of Joy
- 56 Special Healthy Food • Why Italian Cuisine?

Info

- 58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78 ECONET Photo Contest
- 82 Quiz! Quiz!
- 83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Culture & Life

- 46 신제품소개 • 유니베라 한국의 홍삼액 골드와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메이크업 제품
- 52 추천도서 • 와인의 달인 몬다비
- 54 Special Healthy Food • 왜 이탈리아 식단인가?

Info

- 58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78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82 퀴즈 퀴즈!
- 83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세계 무대에 서다

“알로에가 잘 팔릴 때일수록 품질향상에 힘쓰고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국내 최고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연호가 직원들에게 재삼 당부하고 강조한 말이었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IASC)에 가입하다.

1988년도 새 수첩에서는 아직 상큼한 잉크냄새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난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다.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우리는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IASC)에 가입하게 된다. 이제 국제무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꿈꾸며 새해 첫 달을 맞이하려 한다.’

비행기가 제트기류를 만난 듯, 가볍게 요동쳤다. 펜을 멈춘 채 연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지난해는 참 운이 좋았지. 일 년에 만 병만 팔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연호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돌았다. 이제는 다달이 만 병 이상 생산을 해도 주문량을 못 따라 갈 지경이었다. 맨손으로 알로에 불모지에 뛰어든 지 10여 년째, 알로에 제품화를 위해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고 영업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닌 정성에 하늘도 응답을 해준 듯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호는 다시 펜을 들어 꼭꼭 눌러 썼다.

‘이런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해. 성공은 어느 날 문득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 취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다 새나가곤 하지. 나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자.’

텍사스 오스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IASC)는 1981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알로에의 품질 기준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단체였다. 까다로운 규약을 요구하는 협회에 힘들게 가입해봤자 특별히 득될 것도 없지 않느냐고 시큰둥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연호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은 국내에 알로에 붐이 일어, 알로에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제품을 출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가면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게 뻔했다. 1980년대 초, 저질 상품의 알로에 대장군 파동으로 알로에 사업이 존폐위기에 섰던 것을 연호는 잊지 않고 있었다. 알로에가 잘 팔릴 때일수록 품질향상에 힘쓰고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국내 최고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연호가 직원들에게 재삼 당부하고 강조한 말이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주무시지 않구요.”

잠든 줄 알았던 병훈이 옆자리에서 몸을 추스르며 말을 건넸다.

“꽤안타. 니나 눈 좀 붙이라. 방학이라고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다. 그동안 협회 가입 준비한다고 욕봤제?” 연호가 펜 뚜껑을 덮고 수첩을 접으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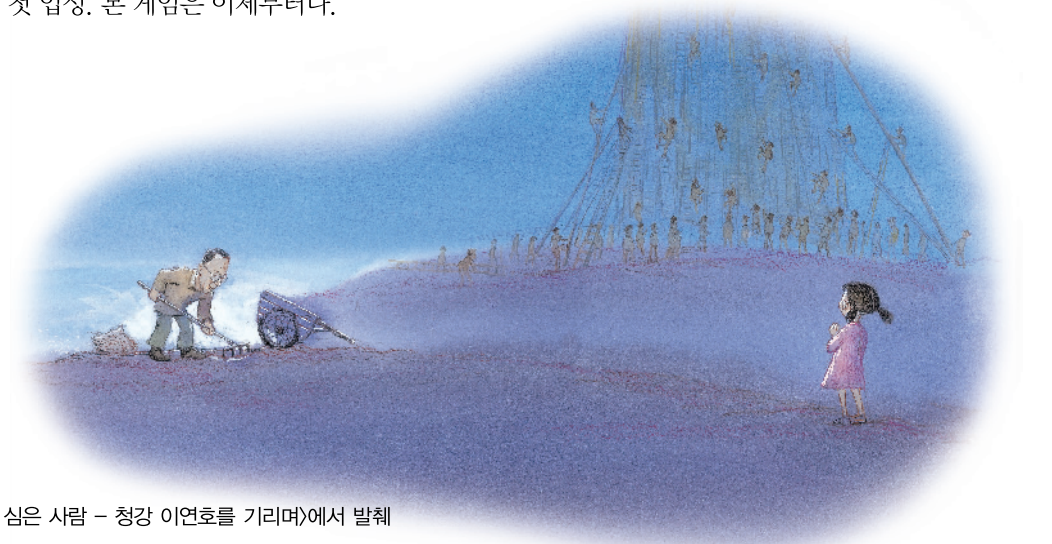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죠 뭐. 협회 규약이 워낙 엄격해서 중도 탈락하는 회사들도 많대요. 더군다나, 거기 사무국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 협회 차원에서 품질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물을 섞은 알로에나 품질 미달 제품 때문에 알로에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질서를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여요.”

“암, 그래야지. 그기 잘하는 일이다.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선전하면서 아무끼나 갖다 팔면 되겠냐? 돈이 올매가 들든 우리도 세계 기준에 맞춰가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 이틀 하고 말 사업이 아닌 기라. 이거는...”

“일확천금할 생각 말고 꾸준하이 길게 갈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말씀이시죠?”

병훈이 연호의 말투를 흉내내며 앞질러 말하자 연호는 껄껄 웃었다.

국제 알로에 무대로의 첫 입성.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문선유 지음, <땅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청강 이연호를 기리며>에서 발췌



Stepping Up to the Global Stage

“When Aloe is selling well, that’s precisely when we must pour more effort into quality enhancement and strengthen our standards for quality control. Now that we’ve risen to the top of the Korean market, we must not sit on our laurels but aim anew for the top of the global market.” These were the words Yunho had emphasized repeatedly to his staff before boarding the plane.”

Becoming the First Asian Company to Join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IASC)

The tangy smell of fresh ink still arose from Yunho’s new pocket book for 1988.

“I’m flying to Texas. For the first time among Korean companies, we will be joining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IASC). We are about to greet the first month of the new year with dreams of making a vigorous leap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The plane rocked lightly, as if it had encountered a jet stream. Stopping his pen, Yunho closed his eyes and fell deep into thought. Last year had been an extremely lucky one. His one wish had been to sell just 10,000 bottles a year... A contented smile played upon his lips. Now, his company struggled to meet demand even though they produced over 10,000 bottles each month. It had been 10 years since he had plunged into the Aloe wasteland that was Korea with nothing but his bare hands. Since then, he had endured all kinds of trial and error, and traveled all over the country to secure a sales network. The success he enjoyed now felt like heaven’s answer to his ardor and dedication.

“This is only the beginning...” Yunho took up his pen once more and wrote the words in firm, emphatic strokes.

“This is the time when I must look far ahead into the future and invest accordingly. Success can pour in like a sudden flood, but if one becomes intoxicated by it and lets one’s guard down, it can just as easily slip through one’s fingers.”

“At this juncture, I need to start drawing a blueprint aimed at building the finest company in the world. I mustn’t let myself become self-satisfied.”

The IASC, based in Austin, Texas, was founded in 1981 as a non-profit organization. Since it came to

quality standards for Aloe, it had been serving as the only institution whose credibility was globally acknowledged. Some people complained that no particular benefit was to be gained from joining the IASC, with its stringent and finicky standards, but Yunho thought otherwise. Thanks to the current Aloe boom in Korea, various upstart companies were tripping over one another to put products indiscriminately on the market. But it was as plain as day that what they were doing was tantamount to digging their own graves. Yunho still remembered the crisis of the early 1980s, when the discovery of E. coli in low-quality products had brought the Aloe industry to the brink of extinction.

“When Aloe is selling well, that’s precisely when we must pour more effort into quality enhancement and strengthen our standards for quality control. Now that we’ve risen to the top of the Korean market, we must not sit on our laurels but aim anew for the top of the global market.” These were the words Yunho had emphasized repeatedly to his staff before boarding the plane.

“Aren’t you tired? Why don’t you catch some sleep?” Bill, whom he had thought to be asleep, asked from the adjoining s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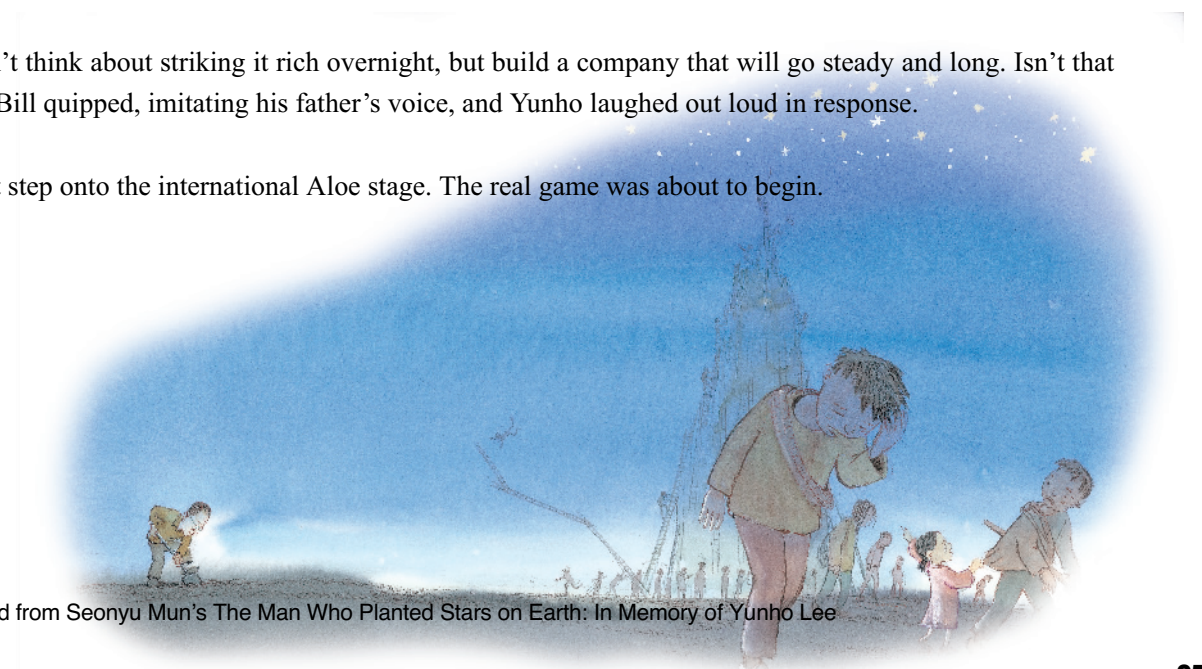
“I’m fine. You should get some rest, though. I’m sorry you’re not getting to relax at all during your school break. Preparing to join the IASC has been demanding work, hasn’t it?” Yunho answered, capping his pen and shutting his pocket book.

“The really hard part is yet to come. Because the guidelines are so strict, I hear that numerous companies fail to make the cut. What’s more, the secretary-general tells me that the council is preparing to institute a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 It bespeaks their firm intention to establish order and prevent the Aloe market from being negatively affected by diluted Aloe and otherwise substandard products.”

“Of course, that sounds about right. You can’t sell just any old product while advertising it as salutary! No matter the cost, we need to make products that measure up to global standards. After all, this isn’t a business we’re dabbling in for a quick buck ...”

“So don’t think about striking it rich overnight, but build a company that will go steady and long. Isn’t that right?” Bill quipped, imitating his father’s voice, and Yunho laughed out loud in response.

His first step onto the international Aloe stage. The real game was about to begin.



Excerpted from Seonyu Mun’s *The Man Who Planted Stars on Earth: In Memory of Yunho Lee*

Wellness

당신의 웰니스(wellness)는 이번 여름에 시작됩니다!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웰니스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두루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몸매에 시선이 집중되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선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뚱뚱하든 날씬하든, 뭐니뭐니해도 찐눈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몸매이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생활 등 각자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이제는 커튼을 열고 닫는 리모콘까지 있으니, 과연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졌으며, 이런 생활의 변화는 심장병, 암, 중풍, 당뇨 등 여러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질병은 미국인들의 4대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통계적 수치로 말하자면 미국인 중 약 80%가 여가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그러한 여가시간의 절반을 텔레비전 시청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KOTRA: 7/25/2003).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운동) 활동은 감소하게 되는데, 10대들은 매일 평균 40분 정도를 운동하는 반면 35세 이상 성인들은 하루에 1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AdAge.com: 5/2/2005). 게다가 미국 인구의 무려 78~80%가 충분한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건강회의, “애플루트 어드밴티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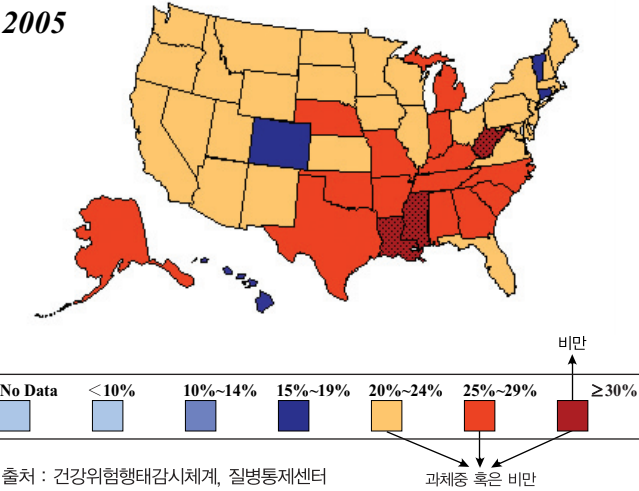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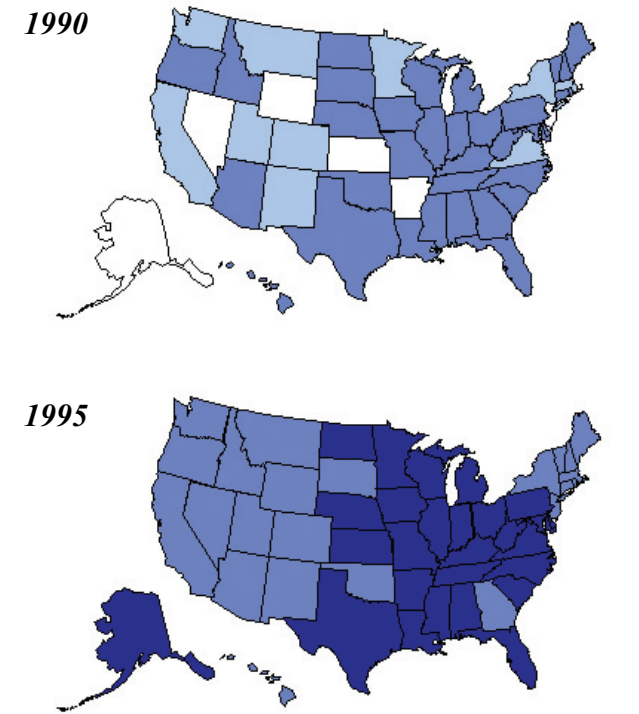
결국 이처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은 미국인들의 비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인구의 67% 정도가 과체중, 30% 이상이 비만 상태였다고 합니다 (출처: 건강위험행태 감시체계, 질병통제센터).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성인인구 비만 추세

BRFSS, 1990, 1995, 2005

(*기초대사 ≥30, 혹은 신장 161cm일 경우, 약 13.5kg의 과체중)



흡연 역시 당신의 삶과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24세의 여성 흡연자이며 앞으로 흡연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일생에 걸쳐 약 1억 6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24세 남성 흡연자의 경우 그 비용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용,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지원 의료보험, 혹은 개인 의료보험이 사용될 것입니다 (2007년 미국 건강회의). 아직 담배를 피우는 에코네시안 여러분, 담배 한 개피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강해지거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지나친 운동 매니아나 먹는 음식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영양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동네에서 조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범한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www.bipino.co.kr, www.fatout.co.kr

<http://blog.naver.com/tulturist?Redirect=Log&logNo=100035254189>

<http://blog.naver.com/gguu2020?Redirect=Log&logNo=80037569760>

일상적인 활동	소요시간 (분)	현재 몸무게		칼로리 소모량 (kcal)
		(kg)	(Lb.)	
설거지	10	60	133	23
집 청소	10	60	133	25
다리미질	10	60	133	23
침대 정돈	3	60	133	13.5
빨래	10	60	133	20

일상적인 활동	소요시간 (분)	현재 몸무게		칼로리 소모량 (kcal)
		(kg)	(Lb.)	
계단 오르기	20	60	133	74
독서	60	60	133	54
버스 안에 서있기	35	55	121	170
대중교통 이용	50	55	121	270
일터에서 활동량 늘이기 •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 빨리 걷기	30	55	121	270
쇼핑	50	55	121	160
요리	10	60	133	25
목욕	60	60	133	132
담화	20	60	133	24
정원 가꾸기	10	60	133	45

이 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래 표는 운동종목에 대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출처 : www.bipino.co.kr, www.fatout.co.kr

<http://blog.naver.com/tulturist?Redirect=Log&logNo=100035254189>

<http://blog.naver.com/gguu2020?Redirect=Log&logNo=80037569760>

운동종목	소요시간 (분)	현재 몸무게		칼로리 소모량 (kcal)
		(kg)	(Lb.)	
조깅	30	60	133	221
수영	30	60	133	189
자전거 타기	30	60	133	252
걷기	30	60	133	63
농구	30	60	133	252
축구	30	60	133	284
요가	30	60	133	79
스쿼시	30	60	133	378
테니스	30	60	133	221
볼링	30	60	133	95
에어로빅	20	60	133	58

에코네시안 여러분, 무언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지나치게 편리한 생활이나 흡연과 같은 해로운 습관들의 심각성과 운동종목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소모되는 칼로리량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을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 회의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몸매도 가꾸고 여름을 위한 준비도 마치고.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몸매와 즐거운 웰빙을 기원합니다!

Wellness

Your physical wellness starts this summer!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While it is our best interest to stay at the optimal state of all the four components of wellness - that is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s - let's focus on your physical wellbeing this month since summer is coming, and we all know that this is when your body gets most attention; Whether you are well in-shape or way overweight.

In reality, albeit our repeated attempts to exercise and eat healthy, we often find ourselves simply not having the time or devotion do so. It is also true that due to advancement of technology, we just don't need to move around as much as prior times that life has become just too comfortable and convenient for us; We have cars, elevators, and even remote controls for not only TVs but also for window blinders! How far are we going to go?

Subsequently, such comfort and convenience in life have led us to sedentary lifestyle, which has resulted in us to suffer from lifestyle disease such as heart disease, cancer, stroke and diabetes; These are the top four killers in the United States. Just to give you a brief statistical overview, about 80% of Americans spend their leisure time at home and half of that time is spent on watching TV (KOTRA: 7/25/2003). Also, it is found that as you age, your physical (or exercise) activities decrease - Teenagers spend about 40 minutes per day on average while individuals over 35 spend less than 15 minutes per day on exercise activities. (AdAge.com: 5/2/2005). In addition, one report claims that roughly about 78-80% of U.S. population are not getting themselves engage into enough physical activities (Wellness Councils of America 'Absolute Advantag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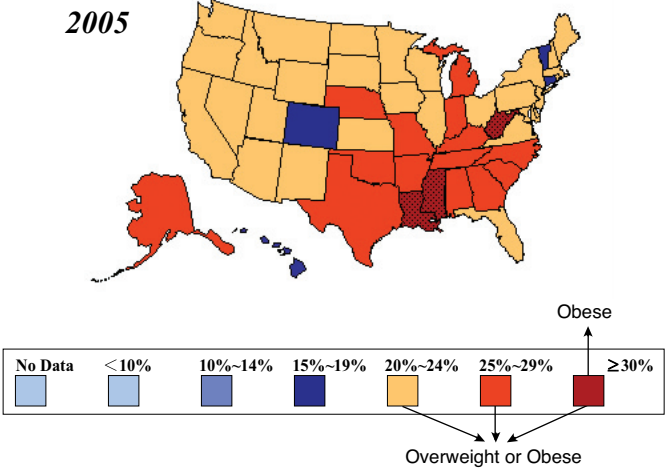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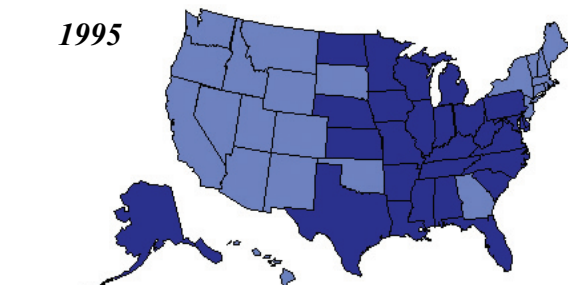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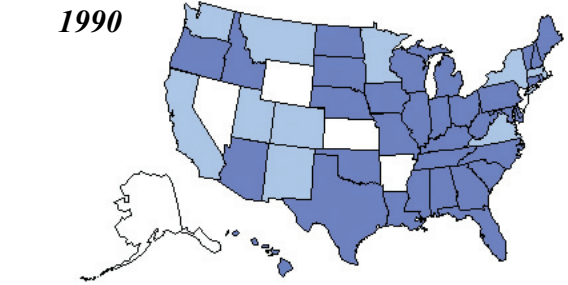


Ultimately, such sedentary lifestyle seems to have taken its toll on American's obesity level as well that by 2005 about 67% of the U.S. population was either obese or overweight and over 30% were obese! (Sourc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CDC). This is a truly staggering fact.

Obesity Trends Among U.S. Adults

BRFSS, 1990, 1995, 2005

(*BMI ≥30, or about 30lbs overweight for 5' 4" person)



Source :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CDC

Another factor that may be threatening not only your life but also financial status may be tobacco use. It is calculated that if you are a 24 year old female smoker and continue to smoke, it is going to cost \$106,000 for you over your lifetime to treat the disease that you get from tobacco use. If you are a 24 year old male smoker, it's going to cost you \$220,000; This could be your personal expense, US Health Care Expenditure including Medicare & Medicaid, and/or cost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2007 Wellness Councils of America). To those ECONETians who still smoke, you may want to think again before pulling out your next cigarette.

Meanwhile, in delving into ways in which you can stay in shape or embark on your fitness journey, I found out that you don't have to be an exercise fanatic or nutritional genius counting your calories on everything you eat. Of course you can sign up for a fitness center or start jogging around the block in your neighborhood, but there are things you can do to burn your calories or even drop few pounds while doing whatever you need to do to carry out your daily routine activities in your ordinary everyday lives.

Here are few helpful tips:

Source : www.bipino.co.kr, www.fatout.co.kr,

<http://blog.naver.com/tulturist?Redirect=Log&logNo=100035254189>

<http://blog.naver.com/gguu2020?Redirect=Log&logNo=80037569760>

Daily Activities	Time (min.)	Current Weight		Calorie burnt (kcal)
		(kg)	(Lb.)	
Washing dishes	10	60	133	23
Cleaning house	10	60	133	25
Ironing	10	60	133	23

Daily Activities	Time (min.)	Current Weight		Calorie burnt (kcal)
		(kg)	(Lb.)	
Fixing your bed	3	60	133	13.5
Doing laundry	10	60	133	20
Climbing up Stairs	20	60	133	74
Reading	60	60	133	54
Standing on a bus	35	55	121	170
Public transportation	50	55	121	270
Being more active at work • Not taking elevators • Walking fast	30	55	121	270
Shopping	50	55	121	160
Cooking	10	60	133	25
Taking bath	60	60	133	132
Talking	20	60	133	24
Gardening	10	60	133	45

In case you are pleasantly motivated after reading this article and choose to begin your fitness journey, well, good for you, and here are some helpful tips to calculate your calo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exercise you choose.

Source : www.bipino.co.kr, www.fatout.co.kr,

<http://blog.naver.com/tulturist?Redirect=Log&logNo=100035254189>

<http://blog.naver.com/gguu2020?Redirect=Log&logNo=80037569760>

Type of Exercise	Time (min.)	Current Weight		Calorie burnt (kcal)
		(kg)	(Lb.)	
Jogging	30	60	133	221
Swimming	30	60	133	189
Bicycling	30	60	133	252
Walking	30	60	133	63
Basketball	30	60	133	252
Soccer	30	60	133	284
Yoga	30	60	133	79
Squash	30	60	133	378
Tennis	30	60	133	221
Bowling	30	60	133	95
Aerobics	20	60	133	58

Well, there you go, ECONETians~ Get the idea? Now that you've been informed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you may encounter by continuing sedentary lifestyle and bad habits, tobacco use in this case, and also have the list of calories being burnt through either carrying out daily activities and/or by doing different types of exercises, you no longer have excuse for hauling around those extra pounds or not having enough energy! Start today or right now! - Instead of taking the elevator for your next meeting, why don't you run up a few stairs? In no time, you will be in great shape and sure will be ready for the great summer!

Wishing you all the best look in this summer and happy wellbeing~!

에코넷 창립 31주년

“또 다른 30년을 향해”



이병훈 총괄사장의 31주년 창립기념사
Chairman Bill Lee's commemorative speech

에코넷 창립 3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4월 5일 에버랜드 야외 무대인 이벤트 플라자에서 에코넷 한국 3사 전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미’와 ‘의미’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다른 30년을 향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창립기념행사는 먼저 ‘의미’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고 청강 이연호 회장의 평전인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에서 발췌한 내용을 통해 에코넷의 창업이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성공적인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던 과감하고 고통스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업자인 이연호 회장에게 알로에라는 식물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었으며, 당신에게도 그것은 들뜨고 설레는 일이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올해는 에코넷의 이병훈 총괄 사장이 20년 근속상을 받아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또한, 유니베라 한국의 김영환 사장도 10년 근속상을 받

았다. 장기 근속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년 근속 · 이병훈 총괄사장

10년 근속 · 유니베라 김영환 사장
· 유니베라 김유수 대리
· 네이쳐 텍 이재현 대리, 최순미 대리
· 유니젠 신혜경 대리

공식행사의 마지막은 에코넷의 또 다른 30년을 향한 꿈과 개인적인 꿈을 풍선에 적어 날리는 희망 풍선 날리기로 마무리되었다.

공식 행사 후에는 재미를 돕구는 일정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약 30분 간 열정적인 난타 공연을 관람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이 끝난 후에는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가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곳곳에 설치된 미션장에서 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장기근속자 표창 The presentation of awards for long service



▲ 에코넷 한국 홀딩스 직원들의 조별미션 수행
Team missions by ECONET Korea Holdings employees



▲ 창립 31주년 기념떡 커팅식
The cutting of the ceremonial cake



▲ 창립기념일 기념공연 이벤트
A celebratory performance

▼ 희망의 풍선 날리기 The releasing of balloons of hope



ECONET's 31st Founding Anniversary

‘Toward Another 30 Years’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31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ECONET took place on April 5 at Everland, on the theme park's Event Plaza outdoor stage.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the entire staff of ECONET's three Korean branches-a gathering of over 300 employees.

This year's event, which centered on the dual keywords of 'fun' and 'meaning,' was an occasion for reaffirming ECONET's dedication to another 30 years of excellence.

The celebration kicked off with the search for 'meaning.' Through a reading excerpted from *The Man Who Planted Stars on Earth*, the biography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the attendees learned about the bold and painful decision that led to the birth of ECONET, whose foundation was laid in the pursuit of a more meaningful enterprise at the expense of an existing business that was already successful. Late Chairman Yunho Lee saw aloe as a new path that would allow him to 'br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it was also an exhilarating and urgent prospect for him.

The event included the awarding of commendations for employees who had devoted long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o the company. ECONET Chairman Bill Lee was honored with the award for 20 years of service, to the

applause of all in attendance. In addition, Univera Korea's President Youngwhan Kim received an award for 10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he following is a complete list of those who received awards for long-term service on this day.

20 Years of Service · Bill Lee, Chairman, ECONET

10 Years of Service

- Youngwhan Kim, President & CEO, Univera Korea
- Yousoo Kim, Assistant Manager, Univera Korea
- Jaehyeon Lee and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Naturetech
- Hyegyeong Shin, Assistant Manager, Unigen Korea

The close of the ceremony was marked by the releasing of 'balloons of hope.' Employees wrote their visions for ECONET's next three decades and their own personal dreams on balloons and released them into the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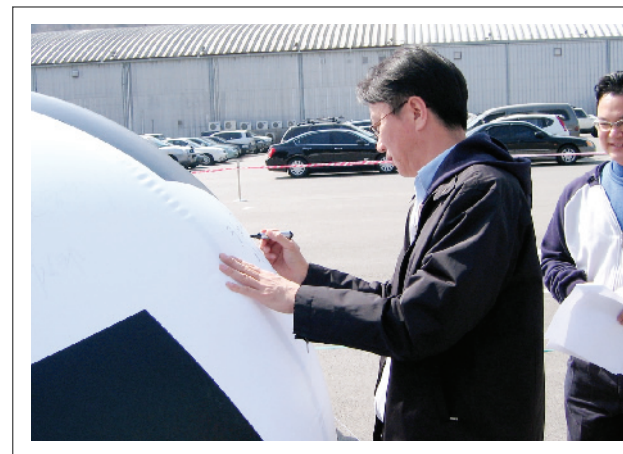
The official ceremony was followed by various entertainment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e attendees enjoyed a 30-minute percussion performance together, and sat down to a delicious group luncheon. After the meal, they entered the Everland theme park and went on a variety of rides, as well as participating in team missions at the mission fields set up here and there around the park.



▲ 유니베라 한국 직원들의 에버랜드 즐기기
Univera Korea staff enjoying a fun afternoon at Everland



▲ 유니베라 한국 직원들의 조별미션 수행
Team missions carried out by Univera Korea staff



▲ 이병훈 총괄사장 에버랜드 행사장 도착 후 31주년 기념 메시지
ECONET Chairman Bill Lee arrived at the event venue and gave a commemorative speech for the company's 31st anniversary.



▲ 왼쪽부터 유니젠 한국 김동식 사장, CTO실 조태형 사장, 유니베라 한국 김영환 사장, 네이처텍 김영태 사장
From left: Unigen Korea President Don Kim, CTO Office President Taehyung Jo, Univera Korea President Youngwhan Kim, Naturetech President Youngta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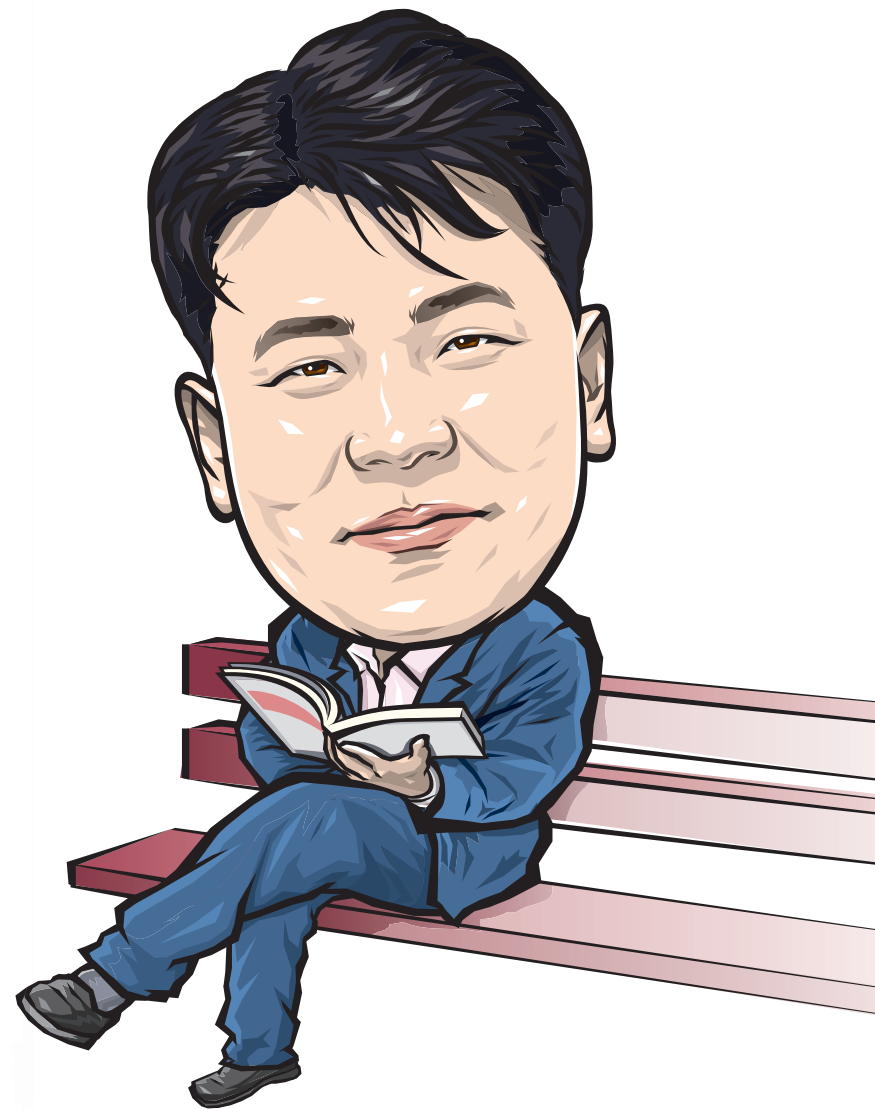
▲ 조별 미션 포상 및 각사별 노래 장기자랑
Prize presentation for team missions and singing contest



▲ 네이처텍 직원들의 에버랜드 즐기기
Naturetech staff enjoying themselves at Everland



▲ 유니젠 한국 직원들의 에버랜드 즐기기
Unigen Korea staff having a good time at Everland



행복한 파수꾼 우길종

글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따뜻한 미소와 익살스러운 말투로 네이처텍의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영지원팀의 분위기 메이커 우길종 대리다. 물 좋고 사람 좋은 고장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글서글한 인상에 온화한 말투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살갑게 대한다.



현재 그는 네이처텍의 지원업무 담당자로 총무 업무 외에 견학 및 각종 행사, 이벤트 업무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손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기 때문에 실 틈 없이 항상 바쁘게 지내지만 짜증을 내기보다는 부드러운 미소와 농담 한마디로 사람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준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축구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네이처텍 직원 모두에게 운동과 회합이라는 선물을 선사했으며 더불어 건강이라는 결실도 맺게 해주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떠오르는, 웃음이 match처럼 몸에 밴, 직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주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가장답게 항상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 파수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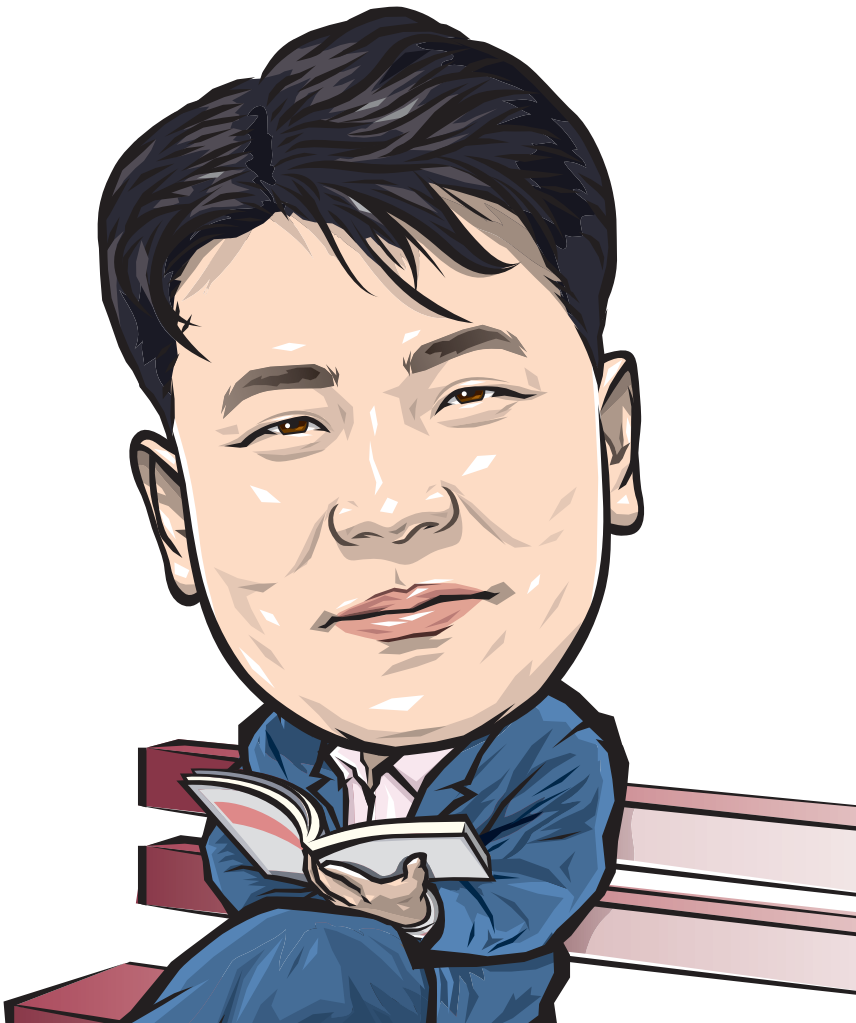
네이처텍에 오시면 웃음과 행복을 지켜주는 경영지원팀 우길종 대리를 꼭 만나보세요.



The Guardian of Happiness Giljong Woo

By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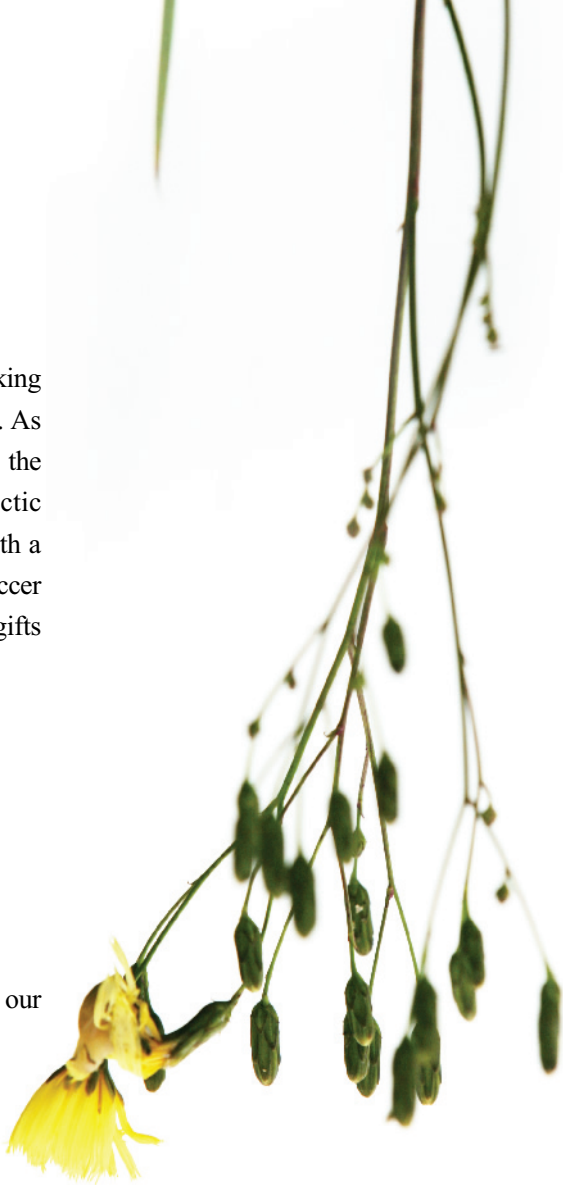
There's a person who brightly greets visitors to NatureTech with a warm smile and humorous banter: Assistant Manager Giljong Woo, the morale-booster of the Management Support Team. Perhaps it's his upbringing in a region known for good water and good people; his open expression and genial tone endears him even to perfect strangers.



At present, Giljong is charged with providing management support. Besides taking care of general affairs, he plans various field trips, functions, and special events. As a result, he meets with more people than anyone else in the company, and is the one person everyone turns to for help, which makes for a breathlessly hectic schedule. But rather than getting irritated, he gets others happy and relaxed with a soft smile and a humorous word. What's more, as the head of the company soccer club for the last two years, he has not only given everyone at Naturetech the gifts of exercise and bonding, but also allowed them to reap the fruits of health.

A man who reminds you of the saying, 'Laughter brings good fortune,' who wears his smile effortlessly, like a perfectly-tailored suit, who finds his co-workers 'itches' and delightfully relieves them, and who nurtures his wife and two children with love, Giljong is a guardian of happiness filled with vim and vigor.

On your next visit to Naturetech, don't forget to meet the man who protects our smiles and our happiness, Assistant Manager Giljong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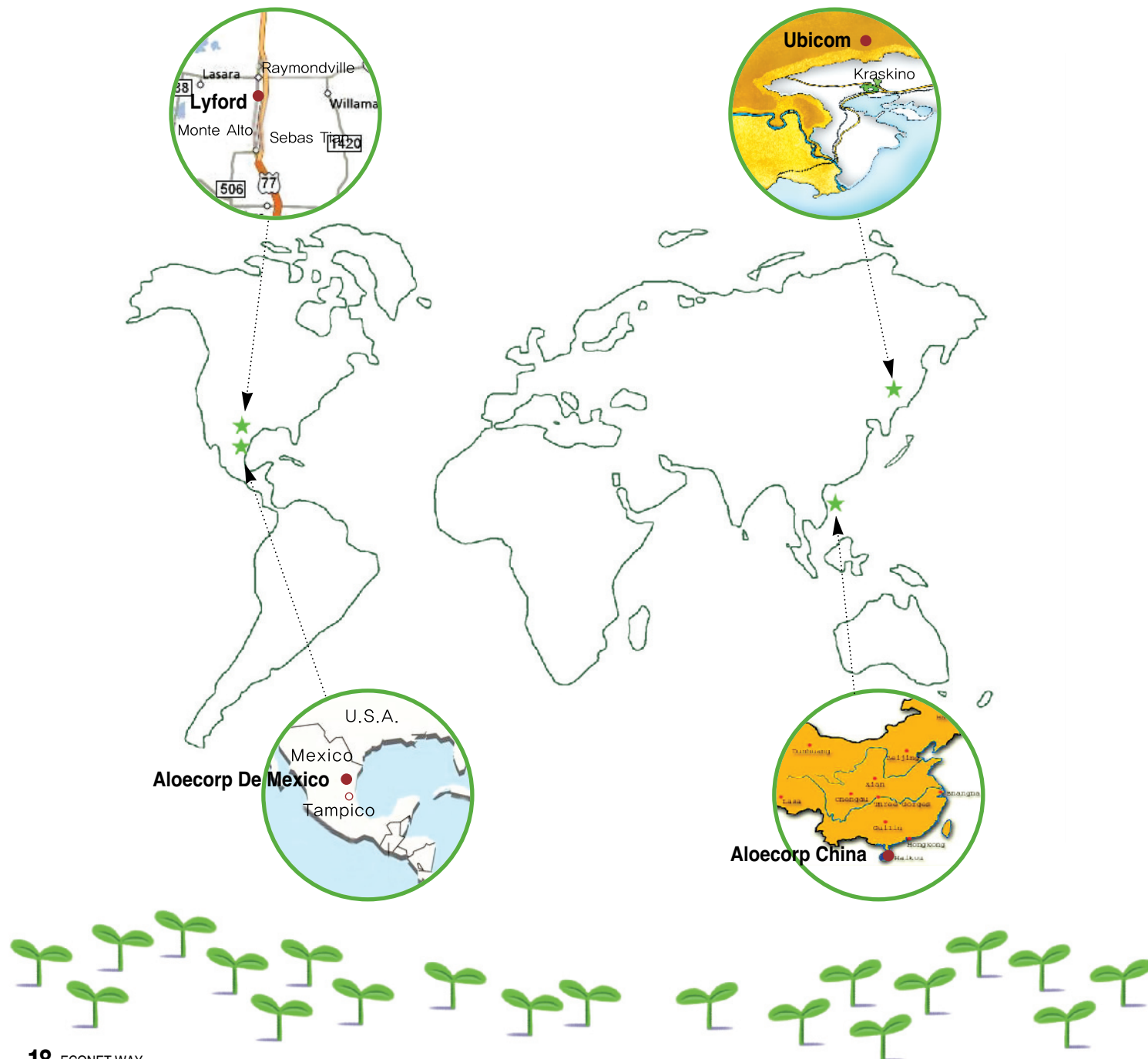


Giljong Woo

Go! Go! Our Division

에코네시안 여러분, 에코넷의 농장들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회에 다함께 알아보시다.

Fellow ECONETians, do you know where ECONET's various farms are located, how extensive they are in scale, and what is cultivate at each? Let's take this opportunity to find out.



1) 위치

미국 국경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5시간 남쪽으로 멕시코 탐피코 인근 곤잘레스(Gonzalez)시에 위치하고 있는 알로콥 멕시코 농장은 연평균 섭씨 23도를 유지하여 알로에 농사에 천적인 냉해의 피해로부터 안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면적

- 184만평 (1,526 acre, 618 ha)

3) 직원현황

- 농장장인 Maximiliano Gonzalez를 포함하여 65명

4) 농장 영농현황

- 1989년 : 텍사스의 극심한 냉해피해로 빙선남부에 위치한 농장수배
- 1990년 : 현재의 농장위치에 공장 준공및 설립
- 현재 식재 현황 : 약 2백만 그루

1) Location

Aloecorp's Mexico farm is located at approximately five hours' drive south of the U.S. border, in the town of Gonzalez near Tampico. The farm maintains an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23 degrees Celsius, safely preserving its aloe crops from its greatest natural threat, cold-weather damage.

2) Area

- 1,526 acre (618 ha)

3) Employees

- 65 employees including Farm Director Maximiliano Gonzalez

4) Agricultural Work to Date

- 1989: Farmland acquired south of the freeze line due to severe cold-weather damage in Texas
- 1990: Construction completed at the farm's current location
- Current cultivation status: approximately 2 million plants





1) 위치

텍사스주 할린젠 (Harlingen)과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라이포드 (Lyford)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미에서 처음으로 알로에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알로에 농장이다.

2) 면적

- 62만평 (518 acre, 210ha)

3) 직원현황

- 힐탑농장 및 조경팀 포함하여 총 13명

4) 농장 영농현황

- 2002년 : 피칸나무 4000그루 식재 및 관개 파이프 매설
- 2003년 : 45종류의 알로에 수집및 식재
- 2003년~현재 : 여러 약용작물 시험 재배중
- 2005년 : 160ha 알로에 식재
- 2006년 : 약용식물원 조성을 위한 조경사업 시작

1) Location

Situated in Lyford, a 30-minute drive north from Harlingen, Texas, and the Mexican border, the Hilltop Gardens is the first aloe farm in North America to start cultivating the crop for commercial purposes.

2) Area

- 518 acre (210 ha)

3) Employees

- 13 employees, including the Hilltop Gardens staff and the landscaping team

4) Agricultural Work to Date

- 2002 : 4,000 pecan trees planted and irrigation pipes laid
- 2003 : 45 varieties of aloe collected and planted
- 2003 to present : Ongoing trial cultivation of various medicinal plants
- 2005 : 160 ha of aloe planted
- 2006 : Landscaping project for a medicinal botanical garden begun



◀ 왼쪽으로부터
사바스, 헥터, 마크, 브렌튼, 호세, 에드윈, 비센테, 산토스,
제임스 그리고 사비노 제리, 베스와 비아트리즈는 함께 하지 못했음

◀ From left to right
Sabas, Hector, Mark, Brenton, Jose, Edwin,
Vicente, Santos, James and Sabino Jerry,
Beth, and Beatriz couldn't be in the picture.



알로에 원료 산업의 정상화 향하여

Striving for becoming the No.1 enterprise of Aloe raw materials

1) 위치

알로콥 중국은 중국 최남단의 하이난 섬에 자리 잡고 있다. 하이난은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섬이기도 한데, 농장은 하이코우와 산야의 중간쯤에 위치한 완닝시에 있다.

2) 면적

- 55만평 (450 acre, 182 ha)

3) 직원현황

- 총 76명

4) 농장 영농현황

- 파종시기 : 1호 농장(2003년), 2호 농장(2005년), 3호 농장(2007년 5월)
- 파종된 알로에 수 : 1호 농장(195, 607), 2호 농장(464, 627), 3호 농장(12,000 / 추정치)

5) 재배 작물의 특성

- 황죽 : 장식용으로 쓰이는 식물의 일종으로 흔히 바구니를 엮는데 사용된다.



1) Location

Aloecorp China located in the extremely south of China-Hainan Island,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China. The farm located in Wanning County, nearly the middle point between Haikou and Sanya city

2) Area

- 450 acre (182 ha)

3) Employee

- 76 employees together

4) Agricultural Work to Date

- Time of planting : 1st farm(2003), 2nd farm(2005), 3rd farm(2007.05)
- Planted Numbers of Aloe : 1st farm(195, 607), 2nd Farm(464, 627), 3rd farm(12,000 / estimated)

5) Characteristics of the crops

- Yellow Bamboo : a kind of ornamental plants, used for braiding the basket.



Ubicom



3국 접경지 황무지에서 꿈을 가꾸고 있는 유비콤

UBICOM : Nurturing the Dream in the Wastelands of the Tri - Border Region

1) 위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군 크라스키노 쭈까노보 및 까미쇼비 마을 인근에 위치

2) 면적

- 650만평 (5,312 acre, 2,150 ha)

3) 직원현황

- 농장장 시도랭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외 23명

4) 농장 영농현황

- 2002년 : 농지 개량 위한 대두 파종
- 2003년 : 약용작물 황금(黃芩) 시험 재배를 위한 첫 파종
- 2004년 : 50ha 황금(黃芩) 시험재배
- 2005년 : 200ha 황금(黃芩) 파종
- 2006년 : 11월 중순 시험 파종했던 황금 40t 첫 수확, 향후 연간 1400t을 생산 할 예정

5) 재배 작물의 특성

- 황금(黃芩)은 북위 41~45도에서 서식하는 3년산 고랭지 식물로, 뿌리를 관절염 치료에 쓴다.
- 2006년 첫 수확을 계기로 우리 농장은 매년 황금 파종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1) Location

Near the villages of Zukanov and Kamyshovoe in Kraskino, Hasan, in Russia's Primorsky Province, where the border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meet.

2) Area

- 5,312 acre (2,150 ha)

3) Perso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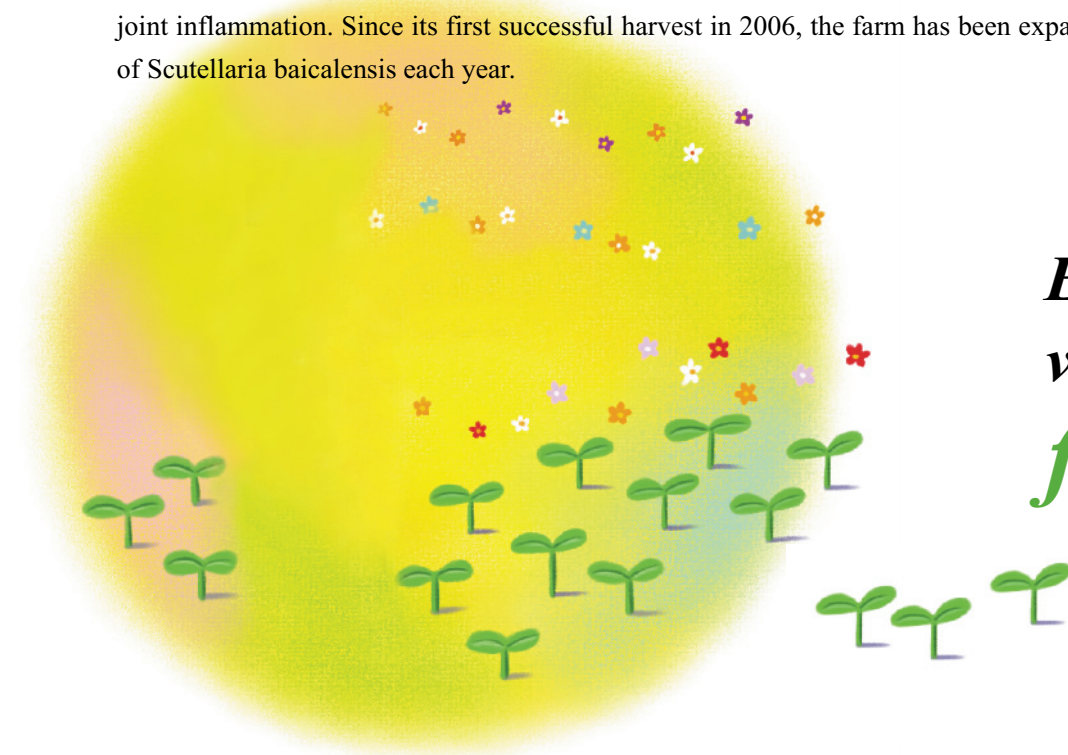
- 24 employees, including Farm Director Sidorenko, Vladimir Petrovich

4) Agricultural Work to Date

- 2002 : Sowing of soybean for soil improvement
- 2003 : Initial sowing of medicinal herb Scutellaria baicalensis for trial cultivation
- 2004 : Trial cultivation of Scutellaria baicalensis over 50 ha
- 2005 : Sowing of Scutellaria baicalensis over 200 ha
- 2006 : First harvest of crop test-planted in mid-November last year, 40 tons
Projected production of 1,400 tons per year in future

5) Characteristics of Scutellaria baicalensis

Scutellaria baicalensis, also known as Golden Root, is a three-year plant indigenous to cold, high-altitude regions. It usually grows between 41 and 45 degrees north latitude and its root is used to treat arthritis and joint inflammation. Since its first successful harvest in 2006, the farm has been expanding the cultivation area of Scutellaria baicalensis each year.



ECONET's
various
farms

에코넷으로의 초대



에코넷 스피릿 주간

글 제니퍼 김, 인사부 사원, 에코넷 미국 홀딩스

달콤한 버터 향과 갓 구운 팬케익으로 레이시의 에코넷 가족들은 '에코넷 스피릿 주간(ECONET's Spirit Week)'의 월요일 아침을 시작했다. 게리 대스트럽 상무를 비롯하여 게일 메리트 스미스 과장, 제니퍼 김 사원, 타라 아담스 보조사원, 김석원 전 전략 매니저, 윤경수 최고 경영전략 부사장, 론 님 건물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인사부는 하얀 앞치마와 주방장 모자, '인사부가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유니폼을 차려 입고 이날 하루 워싱턴 레이시

의 167명의 에코넷 가족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에코넷 스피릿 주간'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에코넷 인사부가 마련한 갖가지 행사에 라이프드와 레이시의 전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에코넷의 정신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화합과 자각과 열림의 주간이었다. 이 행사는 처음 문화 다양성 위원회가 4월 5일 회사 창립일을 앞두고 재미있는 행사를 진행해 보자고 제

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사 기획을 맡은 인사부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아침식사로 제공된 팬케익과 타코, 전통음식 뽕냉면, 아이스크림 소셜 등으로 진행됐으며 각 행사는 2007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졌다. 아침 식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레이시와 라이프드 두 곳 모두에서 동일하게 진행됐다. 행사의 취지는 에코넷 가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모두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화요일 점심식사는 에코넷 가족들이 전 세계의 민속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각양각색의 파스타 요리와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 타코가 식탁을 장식했다. 이 날의 행사에서는 음식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통 의상 수집이 취미인 유니젠 미국의 연구원 카르멘 허텔은 인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자주 입는 사르와르 카미즈(Salwar Kameez 또는 Shalwar Qamiz라고도 불림)라 불리는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나타나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 인사부 사원 제니퍼 김의 한복은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타라 아담스의 발랄한 서부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행사 마지막은 '아이스 크림 소셜(Ice Cream Social)'이라는 디저트로 마무리 되었다. 덕분에 몸무게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에코넷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에코넷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에코넷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코넷 문화의 다양성에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에코넷 미국 인사부가 보여준 서버트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Invitation to ECONET



Invitation to ECONET



ECONET Spirit Week

By Jennifer Kim, HR Representative, ECONET USA Holdings

What better way to start off a Monday morning than with the sweet smell of butter and the warm taste of fluffy pancakes. That's how ECONETIANS in Lacey kicked off ECONET's Spirit Week. Dressed in white aprons and chef's hats with the phrase 'Your Human

Resources Department Serving You' neatly engraved on each uniform., ECONET's Human Resources Department led by Gary Dastrup, Human Resources Director, whose members consist of Gail Merritt Smith, Human Resources Manager, Jennifer Kim, Human

Resources Representative, Tara Adams, Human Resources Assistant, Greg Kim, Former Strategy Manager, KS Yoon, Chief Strategy Officer, and Ron Gnyp, Maintenance Personnel, busily prepared and served the first meal of the day to the 167 Employees located in Lacey, Washington.

I suppose it would be proper to define the meaning of Spirit Week. It was a week for all Employees, both in Lyford and Lacey, to show company spirit by participating in various company events put together by the HR department. To simply put it, it was a week of togetherness... awareness... and openness. It was first suggested by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to put together 'fun' activities leading up to the April 5th Company Birthday and it was up to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 come up with ideas and coordinate activities. With so much diversity apparent throughout our ECONET family of companies, the activities were designed to bring everyone closer together for the celebration.

The events included the Pancake Breakfast (Breakfast Tacos in Lyford), Cultural Potluck, and the Ice Cream Social, which were spread out evenly throughout the week beginning April 2, 2007 and ending April 4, 2007. All activities remained consistent in both Lacey and Lyford except for the choice in breakfast food.

The lunch time festivities on Tuesday brought a whole slew of ethnic foods from all over the world. Colorful Pastas, neatly rolled Kim Bop, and freshly wrapped tacos adorned the table.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is day was not just the food, but the beautiful traditional costumes. Carmen Hertel, a Research Associate for Unigen USA has a special interest collecting costumes. That day she wore a beautiful Costume called the Salwar Kameez (also spelled Shalwar Kameez or Shalwar Qamiz) most commonly

worn in India, Afghanistan, Bangladesh, and Pakistan. HR representative Jennifer Kim's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dress got a lot of compliments while HR Assistant Tara Adam's cheerful western style clothing and hair pulled out a lot of smiles. It was a great chance to realize how beautiful cultural diversity is.

Like the end of a great satisfying meal, the whole week came to an end with Dessert, The Ice Cream Social. The downfall was gaining a couple of pounds but all worth it for all the interesting conversations and cohesiveness that it brought forth to ECONET. These events truly brought the Spirit of ECONET to life and gave our ECONET team a little more insight on the diversity of ECONET's culture.

We all appreciate HR department's great demonstration of Servant Leadership.



Invitation to ECONET



배 나온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집을 나선 구보씨는 지하철역까지 15분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 요즘 구보씨의 눈에는 사람들의 몸매만 보인다. 특히 배 나온 사람은 눈에 더 잘 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더니,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임신부가 유독 눈에 들어왔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유모차에 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글 공승식 팀장,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2007년, 4월이 다 지나가는 어느 날, 소설가 구보씨는 아침 여섯 시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난다. 구보씨는 가볍게 샤워를 한 다음 체중계에 오른다. 그리고는 몸무게를 벽에 기록한다. 3월말에 시작했으니 한 달이 흘러간 셈이다. 그 동안 몸무게는 3.5kg이나 줄었다. 한 달간 몸무게의 변화를 도표로 그려보면 미끄럼틀을 타듯 일직선으로 하강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빠지는 계단식 모양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자기계발관련 책을 읽은 구보씨는 ‘10Kg 감량’이라는 문구를 벽에 큼지막하게 붙여 놓았다. 그래서인지 문구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금니를 악다물게 된다.

아내가 아침으로 차려놓은 밥과 국은 모두 반 그릇이다. 구보씨의 체중감량법이 반식(半食)이기 때문이다. 즉, 이전까지 먹었던 양의 반만 먹는 것이다. 음식 상관없이 무조건 반씩 먹는다. 한 달 전 TV에서 알려준 정보다.

TV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하다. ‘먹는 양 - 소비하는 양 = 살’이라는 공식이다. 35세 이상의 성인이 살을 빼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단다. 그러나

현대인이 그럴 여유가 없으니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면 된다는 거다. 영양실조 걱정은 하지 말란다. 비만인 사람은 이미 몸에 사과 150상자, 쌀 반 가마, 돼지고기 50근에 해당하는 지방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을 나선 구보씨는 지하철역까지 15분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 요즘 구보씨의 눈에는 사람들의 몸매만 보인다. 특히 배 나온 사람은 눈에 더 잘 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더니,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임신부가 유독 눈에 들어왔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유모차에 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점심시간에 구보씨는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으로 간다. 점심도 반식만 한다.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천연 음식 재료만 엄선하여 조리하는 이 식당을 구보씨는 좋아한다. 먹기에 부담이 없고 담백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자극적인 조미료의 맛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여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어느 한의사가 쓴 ‘먹지마 건강법’이라는 책을 보면 오염식품과 불량식품을 줄여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육류, 밀가루, 인스턴트 같은 무거운 음식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줘 몸이 쉽게 피로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질병이 된다는 것이다.

퇴근길은 온통 먹거리로 가득하다. 고기 굽는 냄새가 도로에 가득하고, 포장마차에서는 꼬치를 굽는 김이 모락모락 난다. 입 안에 침이 가득 고일 때마다 구보씨는 왼쪽 손목에 찬 노란 고무줄을 있는 힘껏 당겼다 놓는다. 체중 감량에 성공할 때까지 노란 고무줄은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닐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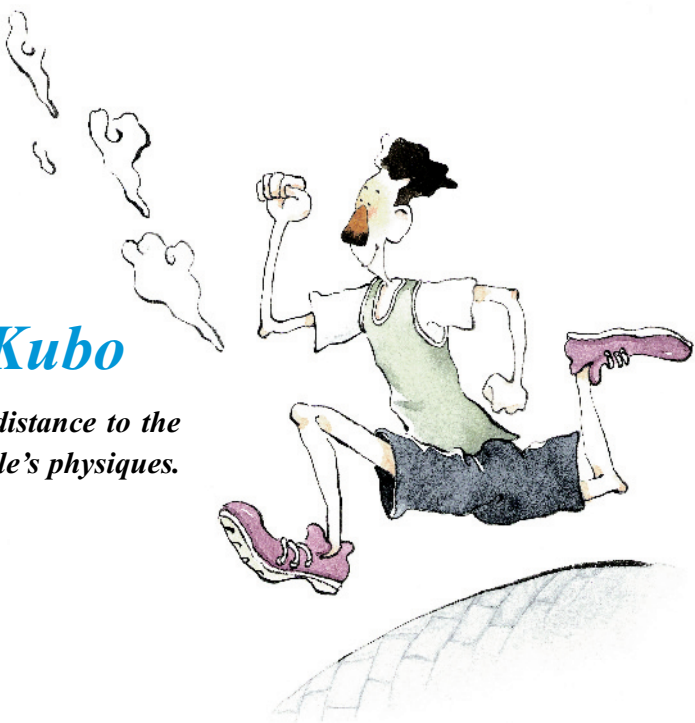
저녁도 반식한 뒤 공허한 뱃속을 아내가 사다 둔 빵튀기로 달랜다. 딸들은 옆에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구보씨의 노란 고무줄을 당겼다 놓는다.

구보씨는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무절제한 식욕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먹는 것 이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만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몸은 정확하게 탐욕과 게으름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A Day in the Life of Potbellied Novelist, Mr. Kubo

Leaving for work, Mr. Kubo walks the 15-minut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These days, all he can see are people’s physiques. Men with potbellies are especially noticeable. They say you only see what you want to see. When his wife was pregnant, he kept spotting pregnant women on the street. When his child was born, babies in strollers kept catching his eye.



By Seungsik Gong, Team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Univera Korea

One day toward the end of April, 2007, Mr. Kubo the novelist wakes up just as the clock prepares to strike the hour of 6:00 a.m. He takes a light shower and steps onto the scale. He then records his weight on a wall-mounted chart. He began his diet in late March, so it’s been one whole month. Since then, he’s lost 3.5 kg. If he were to plot his weight loss as a line graph, it wouldn’t show a steady, linear decline but a step-like decrease at weekly intervals.

Recently, Mr. Kubo read in a self-help book that in order to achieve a goal, one should write it out on paper and display it in a conspicuous spot. So he wrote ‘Lose 10 kg’ in a large hand and put it up on his wall. Every time he sees it, he finds himself gritting his teeth in renewed determination.

The rice and soup his wife has laid out for his breakfast are all half portions. Mr. Kubo’s diet strategy is to reduce his consumption of food by half. In other words, he is only eating half as much as he used to, regardless of the type of food he’s eating. He learned about this strategy a month ago on TV.

The gist of the TV program is simple: it’s the formula, ‘consumption – expenditure = weight.’ If a person aged 35 or above is to lose weight, he or she has to work out for four hours or more each day. However, since today’s adults do not have the time to devote to such sustained exercise, weight loss can instead be achieved by reducing the amount of consumption by half. Don’t worry about malnutrition, the show noted. The body of an overweight person already holds a fat store equivalent to 150 crates of apples, half a bale of rice, and 30 kg of pork.



Leaving for work, Mr. Kubo walks the 15-minut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These days, all he can see are people’s physiques. Men with potbellies are especially noticeable. They say you only see what you want to see. When his wife was pregnant, he kept spotting pregnant women on the street. When his child was born, babies in strollers kept catching his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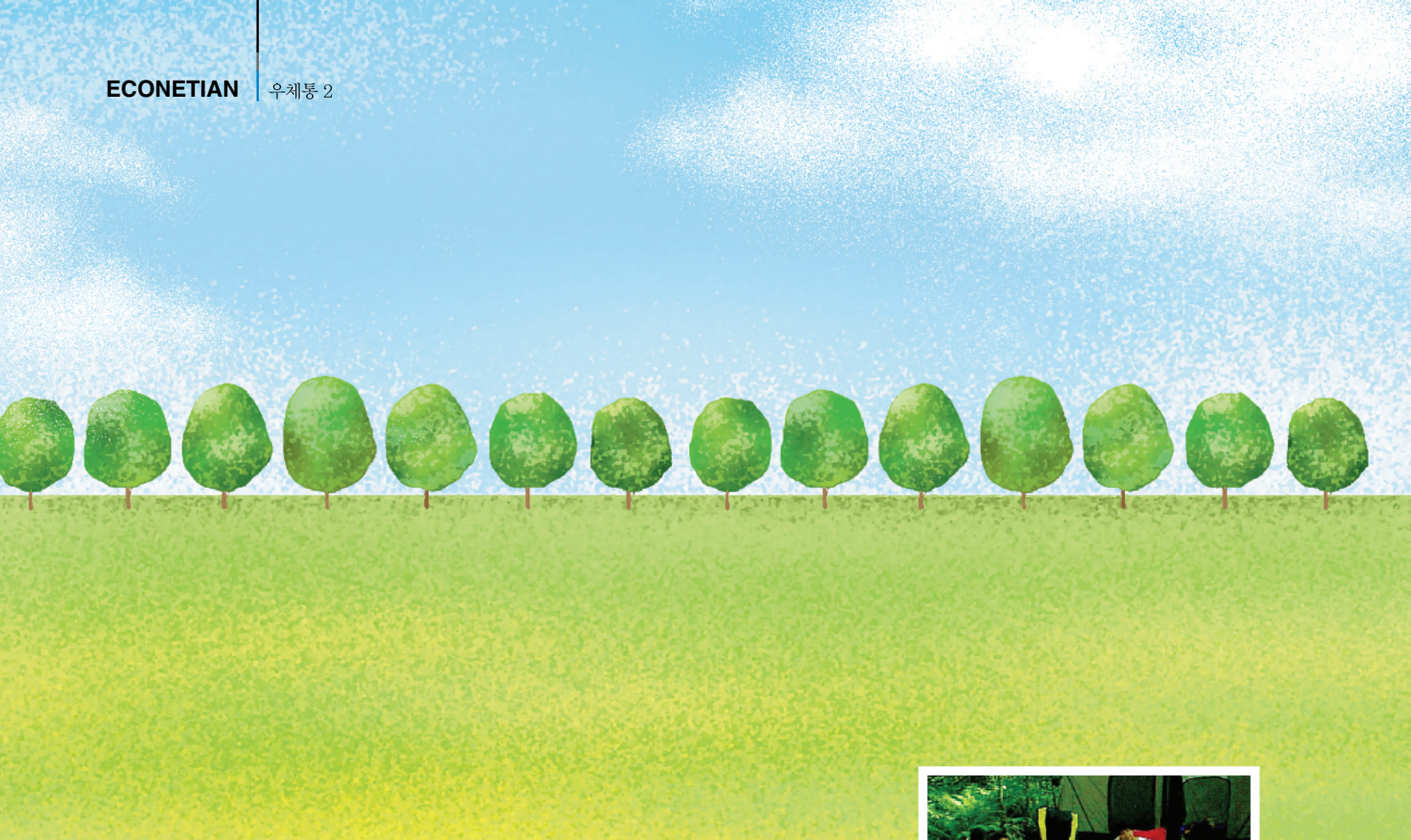
At lunchtime, Mr. Kubo goes to the restaurant on the first floor of his building. He only eats half of his meal. He likes this restaurant very much, because it does not use chemical seasoning and cooks with only the freshest natural ingredients. Their dishes are lightly flavored and easy on the stomach. When he eats at other restaurants, the overly-stimulating flavors unsettle his stomach and cause discomfort. In a book entitled The ‘Don’t Eat’ Guide to Health, a doctor of traditional medicine advises that one can maintain health only by reducing the amount of contaminated or unwholesome food one consumes. Excessive intake of such heavy foods as meat, flour, and instant meals negatively affects the liver and induces exhaustion and lethargy. The repetition of such a cycle, he warns, eventually produces illness.

At the end of his working day, Mr. Kubo’s way home is filled with the temptation of food. The smell of grilling meat fills the streets, and from the tented food stalls, the smoke from barbecuing skewers rises into the air. Whenever his mouth fills with saliva, Mr. Kubo pulls the yellow elastic band on his left wrist and lets it go full-force. Until he achieves his weight loss goal, he intends to wear this rubber band constantly, like a wristwatch.



After a half-portion dinner, Mr. Kubo assuages his lingering hunger with the crispy rice snacks his wife has bought for him. His daughters, amused by his rubber band, keeps pulling it and letting go.

To live a lightweight life, Mr. Kubo thinks that he must choose one of two things. The first is to curtail his unrestrained appetite; the other is to spend more calories than he consumes through physical activity. This means that he must avoid laziness and live an intense life. Otherwise, his body will accurately reveal the results of his greed and indolence.



우리 가족 최고의 여름 휴가



글 안드레아 킬몬, 고객관리부 사원, 유니베라 미국

우리 가족에게 2005년 여름은 정말 멋진 시간이었다. 남편이자 친구인 제시와 결혼하고 맞는 첫 번째 여름이었는데, 제시가 캠핑을 좋아해서 우리는 그 해 여름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캠핑을 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빅 크릭 캠프그라운드(Big Creek Campground)라 불리는 인적이 드문 작은 캠핑지로, 크지도 현대적이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 곳의 매력이라면 레이니어산이 가깝다는 것과 노동절이 낀 주말에도 한산하다는 것이다.

2005년 노동절에 우리는 3일간 캠핑을 했다. 모닥불로 요리를 하고 하이킹도 했으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휴화산인 레이니어산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다. 첫째 날 파라다이스라는 곳까지 차를 타고 갔다. 꽤 길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길이었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레이니어산에는 산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객 안내소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동반하는 산행 코스도 마련되어 있었다. 쉬운 코스부터 험난한 코스까지 다양한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등산로마다 설치된 표지판과 포장된 길 때문에 등산하기에 편리했다. 또한 안내소에서 등산로 지도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야영장에서 가까운 등산로 중 하나를 골라 하이킹을 하기로 했는데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큰 곰이 나무 가지를 꺾고 잔디를 밟고 지나간 흔적이 보였다. 우리가 비록 용감한 가족이기는 하지만 곰과 씨름을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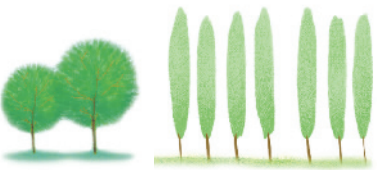
다음 날, 워싱턴 주 엘더 외곽의 엘더 호수(Alder Lake)를 찾아 수영도 하고 따뜻한 여름 태양도 마음껏 즐겼다.

몸이 좋지 않아 수영을 할 수 없었던 조하리는 해변에 시무룩하게 앉아있었다.

저녁은 가장 즐거운 한 때였다. 우리는 모닥불에 둘러 앉아 미시시피의 헤인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마시멜로도 구워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헤인츠는 미국 남부사람들에게 유명한 유령 같은 존재다.)

일요일 아침에는 약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대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평소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했다.

일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든 하이킹 마니아이든 상관없이 빅 크릭 캠프그라운드는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추천할 만하다.





Our Favorite Summer Vacation

By Andrea Tillmon,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USA

The summer of 2005 was a wonderful summer for my family. It was the first summer of my marriage to my husband and friend, Jessie. Being the camping enthusiast that he is, we camped more that summer, than in the preceding 2 years.

Our favorite place is an obscure little campground off the beaten path called Big Creek Campground. It is not big, or modern. It does not even have regular restrooms other than chemical toilets. The chief attraction of this campsite, apart from its close proximity to Mt Rainier, is the fact that it nearly always has a vacancy, even on Labor Day weekend.

That Labor Day of 2005, we camped there for 3 days. We enjoyed meals eaten over a campfire, hiking, and learning more about our nearest dormant volcano, Mt Rainier. The first day of our trip, we drove up to Paradise. It was a long and windy trek up the mountain. The views are spectacular.



There is not only a wonderful visitor’s center where you can learn all sorts of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the mountain itself, but there are also guided and unguided walks there. There are trails ranging from easy to fairly difficult. All of these are clearly marked and mostly paved. There are also maps of these that can be acquired in the Visitor’s Center.

Later, we decided to take a hike on one of the many trails near our campsite at Big Creek Campground. We had to turn back on our walk, as we could hear the ‘grunting’ of a nearby bear. Upon further inspection, could see where a large bear had gone through the meadow, bending branches of a bush, and trampling down the long grass. Although we are brave, we are not stupid enough to tangle with a bear.

The next day, we visited Alder Lake just outside of Alder, Washington. Here we had a great time swimming and basking in the warm summer sun.

Johari pouted on the beach because she was sick and couldn’t go swimming.

Our favorite time of all was in the evenings. We sat around the campfire, told stories of ‘haints’ in Mississippi, sang songs and roasted Marshmallows. (‘Haints’ are ghost like creatures indigenous to the Southern US.)

On Sunday morning, we had an informal worship service. It was awesome for us to worship God in the splendor of His nature.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go camping to relax and get away from it all, or if you are a hiking enthusiast,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at Big Creek Campground. I would highly recommend it as a place to have fun.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네이처텍의 동호회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책상을 벗어나 주위를 둘러 보자. 그토록 고민했던 어려운 문제의 쉬운 답들이 주변에 널려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네이처텍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에는 에코넷이 꿈꾸는 행복한 일터의 힌트가 숨어있다.
그 속에는 허물없이 터놓고 지내는 직원들의 모습이 있다. 그들은 취미를 같이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행복을 나눈다.

산악회

가장 오래된 동호회 모임으로 93년 계룡산, 94년 소백산과 99년 북한산, 2004년 한라산 등을 등반하였고 20개 국립공원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년 2회 이상은 임직원이 함께하며 심신을 달련하고 짜인 스트레스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행을 즐기고 온다. 최근엔 무박 2일로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앞으로는 백두산을 다녀올 계획을 하고있다.

• 산악회 회장 최순미 대리 / Tel : 043-530-7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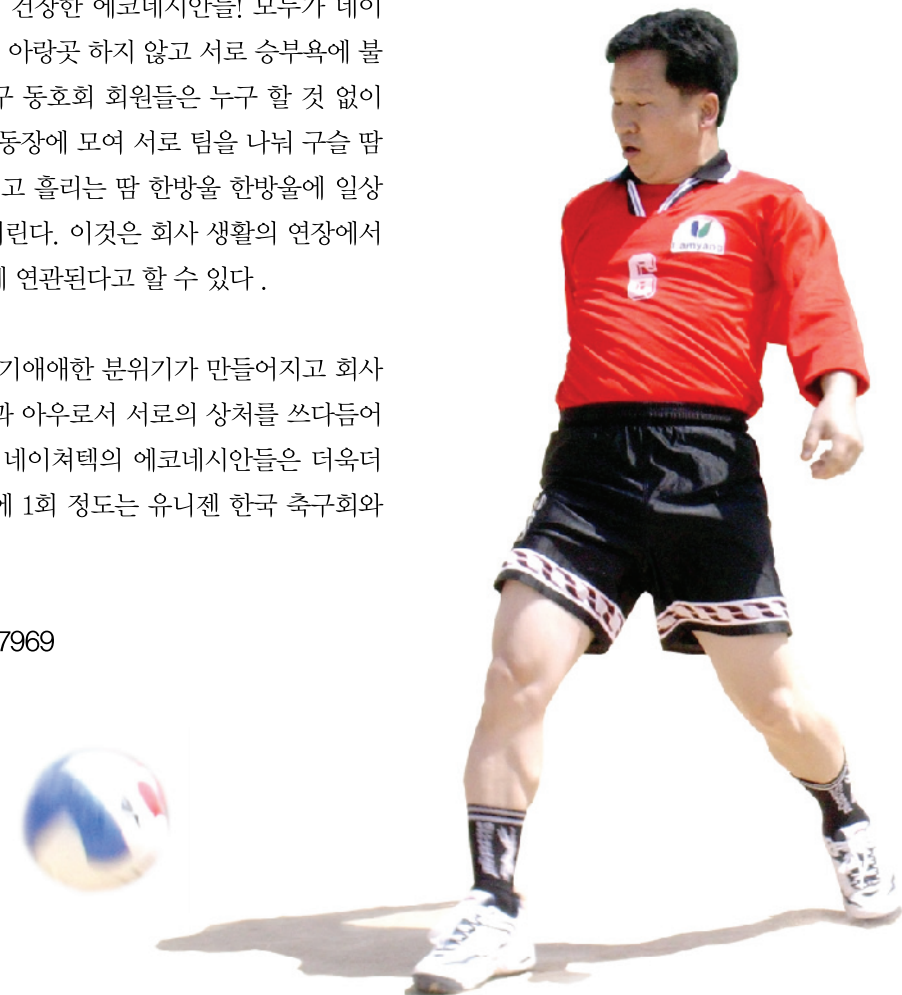


축구회

네이처텍의 미래를 짊어질 30명의 젊은 혈기의 긴장한 에코네시안들! 모두가 네이처텍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다. 비와 바람, 어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 승부욕에 불타 승리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네이처텍 축구 동호회 회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가정의 날 수요일만 되면 여유의 시간을 가져 운동장에 모여 서로 팀을 나눠 구슬땀을 흘린다.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동료애를 느끼고 흘리는 땀 한방울 한방울에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안종았던 일들을 흘려 버린다. 이것은 회사 생활의 연장에서 아주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고 곧 생산력과 품질에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서로간의 대화로서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회사에서는 고참과 아우지만 이 자리에서 만큼은 형과 아우로서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고 서로의 기쁨을 두 배로 나눈다. 이를 통해 네이처텍의 에코네시안들은 더욱더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1년에 1회 정도는 유니젠 한국 축구회와 함께 친선 게임도 즐기고 있다.

• 축구회 회장 유후재 조장 / Tel : 043-530-7969



영화사랑

바쁜 일상생활을 탈피하여 한편의 영화를 통해 자기만의 영화주인공이 되어 영화 속의 자신을 만들어 보는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호회이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영화에 대한 평론을 내리기도 한다. 일명 “나도 한마디”... 또, 유명인사가 개봉영화에 평론하는 것처럼 동호회 사람들이 스스로가 평론도 하고 별점도 표시하여 자기만의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시작한 동호회는 극장에서만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탈피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양수리 서울 영화 촬영소등을 참관·관람하면서 색다른 영화의 참 맛을 느꼈다. 현재, 영화사랑은 네이처텍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는 하나되는 영화사랑 동호회로서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 영화사랑회 회장 정성수 / Tel : 043-530-7968





낚우회

산 좋고 물 좋은 위치에 있는 네이처텍! 눈앞에 초평지가 펼쳐져 있고 10분 거리에 있는 저수지가 수도 없이 많다. 저 멀리 조용한 저수지에 낚시대를 드리워 놓고 모든 사념을 머리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있자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주로 대낚시를 즐기며, 봉어를 잡지만 2년에 한차례 정도 넓은 바닷가로 배낚시를 나가기도 한다. 에코넷시안 여러분! 함께 낚시가지쇼~

- 낚우회 회장 김홍만 조장 / Tel : 043-530-7967



익스트림 Extreme 스포츠

네이처텍의 마지막 동호회이다. 웰빙의 붐이 한참일 때 스키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다니다가 여러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익스트림을 04년 9월에 창단하게 되었다.

익스트림이란 사전상 의미로 극단적인, 한계를 벗어난 이란 뜻으로 빠른 스피드와 위험을 즐기는 과격한 스포츠로 “익스트림 스포츠”라 불리우기도 한다. 겨울 스포츠로는 스키, 스노우보드를 봄가을엔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며, 유니베라와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올해는 다양한 종목(워터 래프팅, 산악 자전거, 암벽등반, 번지점프 등)의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길 구상을 하는 사우들... 도전하며 건강하게 사는 그들이 있기에 네이처텍도 강건 할 것이다.

- 익스트림회 회장 이해원 / Tel : 043-530-7927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Naturetech Clubs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is apt to feel like a daunting task, no matter how long you sit at your desk and ponder the problem. So why don’t you get up from your desk and look around you? You might find that simple solutions to this formidable task lie near at hand. The diverse community clubs operating within Naturetech hide clues to building the happy workplace envisioned by ECONET. In these clubs, employees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candid and affectionate ways. Coming together through their hobbies and leisure activities, they come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partake in an even larger share of happiness.

Alpine Club

This is the oldest community club at Naturetech. Its members climbed Mt. Gyeryong in 1993, Mt. Sobaek in 1994, Mt. Bukhan in 1999, and Mt. Halla in 2004, as well as virtually every one of the 18 national parks in existence. At least twice a year, the staff and executives ascend a mountain side by side, releasing their pent-up stress, breathing in the crisp, clean air, and soothing their bodies and minds. Recently, they went on a two-day trip to Mt. Geumgang. They also have plans to tackle Mt. Baekdu in future.



- If you'd like to take part, please call the club president, Sunmi Choi (043-530-7926).

Soccer Club

30 robust, energetic ECONETians carry the future of Naturetech on their shoulders. And they are all members of the Soccer Club.

Despite rain and wind, they strive toward victory with an undaunted thirst for battle. Every Wednesday, which is Family Day, the club members take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work up a healthy sweat on the field. Tackling and jostling one another, they build camaraderie and shed their stress and frustration with each drop of perspiration. Such activities go beyond the everyday life of the workplace to provide a great source of energy for the company; they even



lead to increased productivity and higher quality.

Conversation among the club members creates a warm and friendly atmosphere, as if everyone belongs to one large family. Although each has his place in the corporate hierarchy, the members become equal in brotherhood on the field, soothing one another’s injuries and doubling one another’s joy.

This allows the ECONETians at Naturetech to form a harmonious and unified voice. Once a year or more, the Soccer Club also enjoys a friendly match with Unigen Korea’s soccer team.

- If you’d like to take part, please call the club president, Whojea Yoo (043-530-7969).

Fishing Club

Naturetech is happily located among green mountains and blue waters. A grassy meadow stretches in front, and there are countless reservoirs within a 10-minute distance. Sitting with your line cast into the middle of a still reservoir, you’ll find all your worries and preoccupations melt away amid the clear water, fresh air, and the soothing sounds of nature. Although the club members mainly enjoy pole-and-line fishing for carp, they venture out to the open waters of the sea once every couple of years. Fellow ECONETians, why don’t you go fishing with us?

- If you’d like to take part, please call the club president, Hongman Kim (043-530-7967).



Movie Lovers Club

This delightful club allows its members to step out of their busy lives to reinvent themselves through a film and become a movie star in their own right. After watching a movie, each member offers a critique, known as ‘My Two Cents.’ And, like a celebrity critic at a movie premiere, our movie lovers evaluate the film and give it a grade, creating their very own movie review. The club now does more than just see films at the theater; it attends various film festivals and film-making landmarks in order to gain a deeper glimpse into the world of movies. At present, the Movie Lovers Club includes not only the staff and executives but their families as well, in the pursuit of happiness for all who participate.

- If you’d like to take part, please call the club president, Sungsu Jung (043-530-7973).

Extreme Sports

This is the last of Naturetech’s community clubs. The Extreme Sports Club was formed amid fervent enthusiasm in September 2004, when the ‘wellbeing trend’ was at its height, by a group of employees with a passion for ski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extreme’ is a state that goes beyond a certain limit. This is where ‘extreme sports,’ with its emphasis on speed, intensity, and danger, takes its name. The club members enjoy skiing and snowboarding in winter, and inline skating in spring and fall. They even got together with Univera in the past. A wide variety of extreme sports (including water rafting, mountain biking, rock climbing, and bungee jumping) are being envisioned for this year. Naturetech will always be hale and hearty thanks to these daring and vigorous sports enthusiasts.

- If you’d like to take part, please call the club president, Haewon Lee (043-530-7927).



유니베라 한국, SBS TV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방영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SBS TV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 '건강 100세의 비밀, 천연물에서 찾아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니베라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법인과 국내의 유니젠, 일반인들의 사례를 통해 유니베라의 우수한 연구실적과 제품들이 전파를 타게 될 것이다.

첫회는 '알로에' 편으로 시작되어 홍삼, 블루베리, 보리지, 쑥과 마늘, 대나무, 가시오가피, 황금, 에크네시아, 칼리마시 등 다양한 천연물을 소개한다. 대장금으로 유명한 탤런트 김소이씨가 리포터를 맡았으며, 코미디언 정선희, 가수 김혜연씨가 출연하여 알로에 사용에 대한 경험담과 미국 텍사스 알로콥 알로에 농장과 멕시코 농장 등이 방영된다. 천연물의 과학적 측면을 분석하고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BS TV와 대대적으로 준비한 방송이다.

- 1 프로그램명 : 토요일집 SBS TV 생방송 모닝와이드
- 2 방송일시 : 2007년 4월 ~ 6월 / 오전 7:40 ~ 8:30(3부)
- 3 방송편수 : 주 1회, 10회
- 4 방송분량 : 매회 10분~13분
- 5 방송소재 : 알로에, 황금, 에크네시아, 대나무 등 본사 관련 천연물
- 6 취재국가 : 국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멕시코, 유럽 등 10여 개국

모닝와이드 텍사스 촬영 현장에서

지난 4월 13~14일 SBS TV 모닝와이드에서 탤런트 김소이씨를 리포터로 앞세우고 알로에 농장을 취재나왔다. 시청자들의 천연물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부응하여 10회 연속으로 건강에 좋다는 천연물을 방영한다고 하는데, 알로에가 그 첫 순서라 한다.

촬영팀은 이틀간의 촬영을 계획했지만 촬영에 능숙한 알로콥/힐탐가든스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몸에 밴 배우의 자세로 하루 만에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의 끼는 아무도 못말려!!



- ☒ 알로에 농장을 찾긴 했는데.. 텍사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커요?
Are all people in Texas this tall?
- ☒ 너무 신기해요.. 알로에를 바른 사과 색깔이 안 변해요..
It's interesting... Apple with aloe on didn't go brownish
- ☒ 텍사스에 왔으니 카우보이처럼.
Like a cowboy



Univera Korea Featured on SBS TV Live Show 'Morning Wide'

Univera will be featured every Saturday from April to June on SBS TV 'Morning Wide,' in an ongoing segment entitled, 'The Secret to Being Healthy for 100 Years: Find It in Natural Botanicals!' The segment is slated to air during Part 3 of each episode of 'Morning Wide.'

Centering on Univera's natural health foods and supplements, the segment will introduce the activities of the company's overseas subsidiaries in the U.S., China, and Russia, the performance of Unigen in Korea and abroad, and various informative cases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In a series of installments, Univera's outstanding research and products will be showcased on broadcast TV.



Starting with a debut installment focusing on aloe, the series will feature a wide variety of natural botanicals including red ginseng, blueberries, mugwort and garlic, eleuthero, golden root, echinacea, and Calymma.

The first installment will feature actress Soyi Kim, of Daejanggeum(Jewel in the Palace) fame, as the reporter, and invite comedienne Sunhee Jeong and singer Hyeyeon Kim to share their experiences of using Aloe. Aloecorp's aloe farms in Texas and Mexico will also be introduced.

The series has been developed extensively in cooperation with SBS in order to provide audiences with information on natural food supplements, along with scientific analyses of their benefits and demonstrations of their outstanding effects.

- 1. Program title : SBS TV Morning Wide Live, Saturday Special
- 2. Air date and time : April - June 2007, 7:40~8:30 a.m. (Part 3)
- 3. Number of installments : 10 installments airing once a week
- 4. Duration : 10 to 13 minutes per installment
- 5. Subject : Univera's natural botanicals, including aloe, golden root, echinacea, and bamboo
- 6. Countries covered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U.S.A., China, Japan, Russia, Mexico, and various European states

Filming - Morning Wide

On April 13 & 14, SBS TV Morning Wide visited our Aloe farm with the actress, Soyi Kim, as a reporter.

Reflecting one the high interests of the viewers in natural products, Aloe was the first among other healthy natural products that will be shown one by one through the next 10 episodes. The crew planned a two-day shooting, but one day was sufficient thanks to the active support and acting of the employees of Aloecorp USA and Hilltop Gardens.



- 실전에 나가기 전에 연습
Practice, practice, practice...
- 나의 파트너- Beatriz
My partner - Beatriz
- 이렇게 크고 통통한 알로에 참이에요
Never seen such big and full aloe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안과 밖을 최적의 조건으로 균일화 되도록 도와주는 베이스 메이크업



여성 아름다움의 완성은 메이크업.

하지만 모든 여성의 피부가 메이크업으로 아름다움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비로소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은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시킨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이 제품은 피부 안과 밖이 들뜨지 않고 균형 있는 상태로 만들어 피부를 한층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준다.

유니베라의 약용식물데이터베이스인 파이토로지스(PhytoLogix™)와 O2P™공법으로 피부 트리트먼트 효과를 높이고, 제트밀 공법으로 미세화된 입자는 메이크업의 효과를 배가시켜준다.



현대 여성은 두꺼운 화장을 기피한다. 인위적인 느낌의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의 생기도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자체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자연스러운 화장은 여성의 피부 결과 피부 톤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 여성을 더욱 매력적이고 기품 있어 보이게 한다.

특히,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은 붉은 색 계열로 화사한 피부 톤을 연출하면서 자외선 차단기능도 있다. 또한 우수한 생산력을 보유한 일본 콜마에서 제조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은 총 4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퀄라이징 메이크업 베이스 SPF15
- 이퀄라이징 리퀴드 파운데이션
- 이퀄라이징 스킨커버
- 이퀄라이징 투웨이케익 SPF25

자신의 피부 톤에 따라 적절한 색상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 보자.

“아, 피곤해. 정말 폭 쉬고 싶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현대인이라면 저마다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일, 주부는 육아와 집안일 등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피로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보약이 유니베라에서 나왔다.
바로 **홍삼액 골드!**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인삼을 이용한 홍삼의 품질을 표준화한 것이 유니베라 홍삼액 골드의 가장 큰 장점. 사람에 따라 효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을 표준화하여 누구에게나 홍삼의 약효를 100%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점이다.

홍삼액 골드는 홍삼 유효 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주요 기능성분인 9가지의 진세노사이드가 표준화되어 원기회복 및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홍삼 사포닌을 흡수가 잘 되는 사포닌 대사물로 변화시켜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적화된 효능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인 홍삼 제품이다.

특히, 건식업계 선두주자인 유니베라가 유니젠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특화한 홍삼 원료 UGSG(Univera Ginsenoside Standardized Red Ginseng)은 유니베라만의 특별한 홍삼 농축액이며 에코넷의 귀한 산물 중 하나이다.

홍삼액 골드에는 동양의 인삼과 서양의 인삼인 가시오가피가 함께 처방되어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하루에 한 포(35ml)로 심신은 물론 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아준다.

“지금까지 홍삼, 헛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홍삼의 효과를 전하는 유니베라의 메시지이다.



“I’m so tired. I wish I could take a break from everything.”

Such is the habitual complaint of everyone these days.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the modern individual is constantly under stress: students are pressured by study, professionals by work, and homemakers by childrearing and housekeeping. Each member of society, carrying out his or her role in a complex web of relationships, suffers from an ever increasing burden of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What’s more, such stress and fatigue eventually become the cause of myriad diseases.

That’s why Univera is unveiling a restorative perfectly suited to the chronically overloaded modern individual

Red Ginseng Tonic Gold!



By Park Jeong Ah,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The greatest strength of Univera’s Red Ginseng Tonic Gold is its standardization of the quality of Korean red ginseng, recognized worldwide for its superior efficacy. By standardizing ingredients that may show different levels of potency for each person, this new product raises the efficacy of red ginseng to 100%, allowing everyone to enjoy its medicinal benefits to the fullest.

Red Ginseng Tonic Gold contains a wide spectrum of active ingredients that are extracted from red ginseng. More importantly, it standardizes the nine types of ginsenoside, which comprise red ginseng’s main active ingredient. Such advantages make Red Ginseng Tonic Gold exceptionally effective for restoring stamina and promoting overall health. In addition, the saponins in red ginseng have been converted to saponin metabolites, which are easily absorbed into the body. Thus, this scientifically-enhanced red ginseng tonic dramatically raises the rate of absorption and enables anyone, regardless of their constitution, to reap its optimal effects.

In particular, the raw material UGSG (Univera Ginsenoside Standardized Red Ginseng) is a red ginseng concentrate unique to Univera, and an invaluable result of ECONET innovation. It was developed and specialize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Univera and Unigen, two of the foremost names in the health food industry.

Red Ginseng Tonic Gold is doubly effective thanks to the inclusion of eleuthero, known as the ginseng of the West, alongside authentic Eastern ginseng. One packet (35 ml) a day not only restores your mind and body, but also revitalizes your day.

“Red ginseng - it’s time to take it right.”

This is Univera’s message, conveying the real efficacy of red ginseng to all.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Base makeup that helps achieve consistent, optimal conditions on the surface and deep inside your skin



Makeup is the finishing touch to a woman's beauty.

Nonetheless, for some, makeup alone is not enough to put the perfect finish on beauty. We often hear people say, "Your makeup is wearing well today!" This indicates the truth of the matter: makeup can only perfect a woman's beauty when it's applied on healthy, moist skin.

L'initie's line of Equalizing Base Makeup reflects women's desire for just such optimal skin. By preventing skin's surface and depths from losing cohesiveness and thus achieving a balanced set of conditions between them,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elevates the natural beauty of skin to the next level.

It offers a dramatically enhanced treatment effect thanks to Univera's medicinal plant database PhytoLogix™ and its unique O2P™ process, while the extremely fine particles produced by the jet mill micronizing process redoubles the effectiveness of make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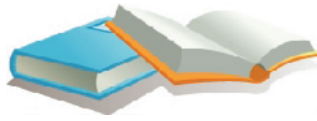
The modern woman avoids heavy makeup. The artificial look created by heavily-applied makeup can emphasize the effects of aging and make skin appear tired and lifeless. Natural-looking makeup that brings out the innate, healthful beauty of skin by restoring the best possible conditions for skin's texture and tone-this is makeup that enables women to radiate charm and grace from deep within.

Moreover,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creates a bright and luminous skin tone through its red-tinted colors, while also providing protection from harmful UV rays. Manufactured by Japan's Kolmar using its superior production capabilities, this new line of makeup promises to inspire consumers with a deeper sense of trust.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products:

- Equalizing Makeup Base, SPF15
- Equalizing Liquid Foundation
- Equalizing Skin Cover
- Equalizing Two Way Cake, SPF25

Choose the color that best fits your own skin tone and create a healthy, beautiful look!



와인의

달인

몬다비

저자 : 로버트 몬다비 (Robert Mondavi)



글 이재은 상무, CKO, 에코넷 한국 홀딩스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와인 사업가로서 몬다비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어 가는지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쏟는 노력, 실패의 아픔, 성공의 기쁨이 모두 담겨있다. 한 권의 책에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 인생의 꿈, 가족,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뤄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을 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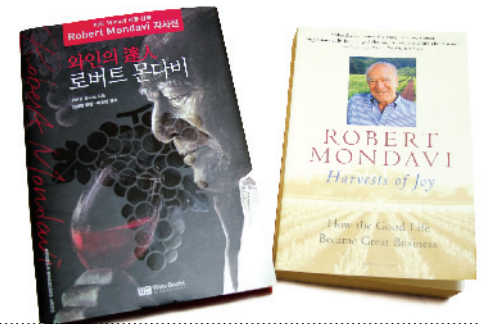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와인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며 와인을 극찬하고 와인을 예술적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는 진정 와인의 전도사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세계적인 명품 와인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몬다비는 52세에 자신의 와이너리를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양조기술과 재배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또한 단순한 포도 재배와 양조 설비가 있는 와이너리를 건축, 전시, 음악, 요리, 공연의 장소로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의 변화를 이루었다. 남다른 도전과 열정으로 최고의 품질과 예술을 접목 시킴으로써 오퍼스원(Opus One)과 같은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내게 된다.

한편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IPO를 통해 외부 자본을 조달하였으나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몬다비가 마음 고생하는 고뇌의 시간도 있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결국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뒷 맛을 약간 씹쓸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마저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면에서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의 달인 몬다비가 들려주는 와인에 대한 예찬을 통해 우리가 와인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의 열정적인 삶, 도전 정신을 통해 우리 자신의 꿈과 ECONET의 꿈을 이루어 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책을 추천한다.

Harvests of Joy

Author : Robert Mondavi



By James J.E. Lee, Vice President(CKO), ECONET Korea Holdings

In this book, wine entrepreneur Robert Mondavi recounts how he started his business and pursued his dream. It describes all his dedicated effort, pain of failure, and joy of success on the road to achieving his vision. It is as if his entire life is contained in this single volume; reading it is like appreciating a finely aged wine that harmoniously blends in with one's memories of childhood, dreams for life, and ambitions for business.

Mondavi accorded the highest praise to wine, noting how wine that ideally complements food enhances our bodies' health and even brings people closer together. A wine aficionado who elevated wine-making to an art form, Mondavi was a true missionary of wine. At a time when California wine was little known, he harbored the dream of making world-class wine and started his own winery at the age of 52. Driven by an unyielding spirit of experimentation and challenge, he adopted innovative wine-making and vine-cultivating techniques. He also sought out those with superior techniques and appealed to their expertise. Moreover, he built a winery with simple vine-growing and wine-making facilities, and transformed it into a cultural product by using it to showcase architecture, exhibitions, music, cuisine, and performance. With unparalleled passion and enterprising spirit, Mondavi brought together the highest quality with superior artistry, creating a premium brand in Opus One.

This book offers important insights from a managerial point of view as well. To ensure higher quality and global scope, Mondavi took his company public and brought in outside capital. But he had to endure through a time emotional hardship when his company stock plummeted after listing. The fact that excessive expansion resulted in his interest being handed over to another also leaves a slightly bitter aftertaste. Nonetheless, even such adversities impart valuable lessons about managing a business; this is another aspect that makes this book worth reading.

The celebration of wine offered by 'wine maestro' Robert Mondavi will provide a welcome opportunity for becoming more familiar with wine. Moreover, his passionate dedication and enterprising spirit in the pursuit of his dream will offer understanding and insight for us as we pursue ECONET's dream and our own. It is with this conviction that I recommend this book.



왜 이탈리아 식단인가?

글 김민경 대리, (주)이음에프엔비

4월24일~27일, 4일간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전 관람과 함께 이탈리아 무역관,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연합이 주관한 세미나에 다녀왔다. 주제는 '이탈리아 식단의 영양학적 이점(부제: 왜 이탈리아 식단인가)' 이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세미나 내용을 에코넷웨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토스카나 주립과학연구소 내 피렌체 향암연구소CSPO 산하 분자영양역학 조절기구장인 도메니코 팔리(Domemnico Palli) 박사가 세미나 강사를 맡아 진행했다. 자료는 이탈리아 무역관에서 제공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개선과 질병치료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미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유럽의 EPIC(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는 10년 전부터 50만 명의 남녀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흡연 여부 등 그 외 주요 생활습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연구 중이다. EPIC의 목표는 첫째, 암 발병에 있어 식단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향상. 둘째, 주요 만성 질병들의 발병에 있어 식습관과 식단 구성 요소들의 역할을 자세하게 연구. 셋째, 두 가지 설문과 생물학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과 개인적인 감염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넷째, 예방조치와 건강 홍보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보급하는 것이다.

EPIC의 실험에 응한 유럽 10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4만7천 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다섯 개의 소집단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지역별로 이탈리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배치했다. 유럽인의 식습관에 대한 EPIC 산하 연구소는 혈액 내 카로티노이드 함유량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는데, 카로티노이드란 과일이나 채소의 색깔을 결정짓는 하나의 천연색소 성분으로 강한 항산화 역할을 한다. 이 연구결과, 이탈리아 지원자들의 혈중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실험 대상자들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즉, 이탈리아인들이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생활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단에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로부터 샐러드, 야채 수프 혹은 올리브유 위주의 식습관이 고령참가자(지원 당시 연령 60세 이상)들의 낮은 사망률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올리브유의 순환기계통 질환 예방력이나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 등의 특정 능력을 넘어 올리브유가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와인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여 인체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과음은 여러 가지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반면 적정량의 레드와인 섭취는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EPIC 토스카나 지점의 연구결과 예비분석에 따르면 식사와 결들인 적정량의 와인 섭취를 통해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그 이점이 증명되어 각광받는 이탈리아 식습관, 그 자체가 건강에 이로운 재료만을 사용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 식습관과 질병 사이의 관계

하나,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의 전형적인 음식들은 만성적인 질병의 위험을 낮추며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음식들은 과일, 야채, 콩과 식물, 올리브유, 복합탄수화물이 함유된 파스타와 소량의 와인을 일컫는다.

둘, 육류와 고칼로리(전형적인 서양식단) 식품의 과다 섭취는 감소된 신체 활동에 비해 불균형한, 과다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일반적으로 몸무게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높다.

eum

- 빙수 또는 하우스 레드와인 500ml
- 본 쿠폰은 2007년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저녁 식사 시간에 한 테이블 당 한 장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 주문 전에 미리 제시하셔야 합니다.





Why Italian Cuisine?

By Minkyong Kim, Assistant Manager, Eum F&B

While visiting the ‘Seoul Food & Hotel 2007’ exhibition, held at KINTEX from April 24 to 27, I attended a seminar hosted by the Italian Trade Commission and the Italian Unioncamere. The seminar, whose theme was the ‘Nutritional Effects of Italian Cuisine,’ offered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y Italian cuisine should be necessary. I would like to share the scientifically-verified contents of the seminar through the pages of ECONET Way. Dr. Domenico Palli, who heads the Molecular & Nutritional Epidemiology Unit of the Florence Cancer Research & Prevention Centre (CSPO) at the Scientific Institute of Tuscany, gave the lecture, and the Italian Trade Commission provided the data.

All over the world, research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improved eating habits and the treatment of disease is either in preparation or already underway on an extensive scale. Since 10 years ago, the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 (EPIC) project has been canvassing and examining a wide variety of data on the eating habits, exercise patterns, and smoking tendencies of over 500,000 male and female volunteers. The objectives of EPIC are: 1) to enhance awarenes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food consumption in the occurrence of cancer, 2)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into the role of eating habits and meal components in the occurrence of the major chronic diseases, 3) to conduct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infection rates and the environment an individual is exposed to, as assessed through two types of surveys and various biological indexes, and 4) to introduce scientific standards for promoting health and disease prevention methods.



As one of the 10 countries that took part in EPIC’s experiment, Italy recruited 4,700 volunteers, subdivided them into five groups, and installed them by region in the north, center, and south of the peninsula. A research institute under EPIC, in studying the eating habits of Europeans, presented a new theory on carotenoid content of blood. Carotenoids-naturally occurring pigments that affect the color of fruits and vegetables-have powerful anti-oxidant properties. The research in question showed that the carotenoid content in the bloodstreams of Italian volunteers was dramatically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statistic for volunteers from other European nations. In other words, it can be assumed that fruits and vegetables are dominant in the diet of Italians, which can thus be seen as closely approaching the ‘Mediterranean’ diet.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a diet based on salads, vegetable soups, and olive oil is closely related to the low death rate prevailing among the more elderly (aged 60 or over at the time of the experiment) volunteers.

Such results go beyond confirming the well-known benefits of olive oil in preventing cardiovascular disease or of polyphenol in deterring oxidation; they are deeply significant in pointing to olive oil as the key to overall health and longevity. Wine also contains a large amount of anti-oxidant substances, thus offering great benefits to physical health. Although excessive drinking is an important cause of cancer, the consumption of appropriate amounts of red wine significantly aids the circulation of blood. According to preliminary analyses of the study results obtained by the Tuscany branch of EPIC, the habit of adding a small portion of wine to a meal can decrease overall mortality rates. The diet of Italians has come blazing into the spotlight, its benefits proven by scientific study. Its use of salutary ingredients sets a fine example for people across the world.

Conclus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and the eating habits of various Italian peoples

1. The typical foods comprising the traditional Mediterranean diet lower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and are beneficial to health. These foods include fruits, vegetables, beans, olive oil, pasta containing complex carbohydrates, and small amounts of wine. 2. The amount of energy absorbed through excessive consumption of meat and high-calorie foods (typical Western diet) exceeds that expended through physical activity. This generally results in weight increase.

eum

- Shaved ice dessert or red wine (500 ml)
- This coupon is valid through July 31, 2007.
- Only one coupon per table can be accepted during dinner hours
- This coupon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discount offers.
- Please present coupon before placing order.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1 에코넷 글로벌 CEO 미팅

에코넷에서 CEO 미팅이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일년에 두 번 진행된다. 2007년 봄 Global CEO 미팅은 4월 22일~24일 시애틀에서 진행되어 첫째 날에는 참석한 각 사 CEO와 임원들의 단합을 위한 팀워크 강화활동이 있었다. 이어 이틀간에 걸쳐 2007년 전략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 및 계획공유가 있었다.



ECONET Global CEO Meeting



ECONET holds two Global CEO Meetings each year, alternating between the U.S. and Korea. The spring 2007 Global CEO Meeting took place in Seattle, WA, from April 22 through 24. On the first day, the CEOs and executives from each company participated in team-work boosting activities. The following two days were devoted to the checking of status of strategic goal achievement for 2007 and the sharing of plans for future progress.

2 서번트 리더십 교육

에코넷 한국의 임원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팀장과 팀원에 대한 첫 공식 서번트 리더십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11일~12일과 5월 18~19일 각 1박 2

일 동안 2차에 걸쳐 약 130여명의 팀장과 팀원이 Awareness와 경청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교육 받았다.

서번트 리더십 교육에서 각 사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은 지식의 전달 보다는 에코넷의 고위 경영진에서부터 서번트 리더십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6월 15~16일 3차 교육이 진행되면 올해의 서번트 리더십 교육은 마무리된다.

올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과 2009년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교육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향후 2년 동안 추가로 교육될 모듈이 개발되고 있다. 2008년부터 진행되는 교육에는 팀장의 참여도 강화된다. 팀장급에 대한 교육은 임원이 책임지고, 팀원에 대한 교육은 팀장들이 강사가 되어 교육한다.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임원들에 대한 트레이너 교육이 계속 지원될 것이며, 새로이 강사로 나서게 될 팀장들도 트레이너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Servant Leadership Education



The month of May saw the launching of the first official Servant Leadership training program for team managers and members, with the executives of ECONET Korea serving as instructors. Over two separate two-day sessions, first on May 11-12 then again on May 18-19, more than 130 team managers and members underwent education in awareness, attentive listening, and the feedback process.

The enlistment of company CEOs and executives as instructors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n Servant Leadership education, conveying the higher management's firm dedication to practicing Servant Leadership takes priority over the imparting of knowledge. This inaugural program will be wrapped up after the third session takes place on June 15-16.

Even as the current training program presses on, new plans for Servant Leadership education in 2008 and 2009 are being prepared. Additional training modules for the next two years are presently in development. In 2008, the role of team managers will be reinforced: executive instructors will lead the training of team managers, while the latter, in turn, will be in charge of instructing team members. To carry out this plan effectively, trainer education for executives will continue to take place, and team managers will receive training as well in their prospective role as instructor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3 CCMS운영 보고 및 교육 실시

CCMS임직원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에코넷 3사 전 사원 교육을 목표로 유니베라 한국은 4월, 네이쳐텍은 5월에 사별 조회에 경과 보고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니젠 한국은 6월 조회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무국은 CCMS에 대한 임직원 이해확대, 경과보고를 통한 관심제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CCMS를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CCMS 인증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5월 3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의해 유니베라의 CCMS 인증평가를 위한 실사가 실시되어 CCMS도입 이후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CCMS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혜택을 받는다.

1. 신고사건 자율처리 :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됨.
2. 시정조치수준 경감 : 공표크기, 공표기간 하향조정, 공표명령 면제 등 (상황에 따라)
3. 우수기업 등 포상 : 우수 모범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포상(공정거래의 날)
4. 인증마크 사용 : CCMS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Reports and Training for CCMS Operation

CCMS training for staff and executives is being actively instituted. The executive office is currently conducting progress report and training sessions for all three ECONET companies: Univera Korea and Naturetech underwent theirs in April and May, respectively, while Unigen Korea's session is slated for June. In these training sessions, the executive office work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CMS operation by expanding awareness among executives and staff and by heightening interest in CCMS through progress reports. They are also geared toward obtaining higher evaluations in the CCMS certification process.

Meanwhile, on May 30, Univera will begin undergoing inspection for CCMS certification, administered by an evaluation committee comprising members of various industry, academic, legal, and consumer groups approv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ttee will assess the results of Univera's adoption of CCMS.

A company that has acquired the CCMS certification receives the following four benefits:

1. Autonomous handling of reported cases:
The company independently handles individual cases of consumer injury among consumer statu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Door to Door Sales Act, Electronic Transactions Act) violations reported to the Korea FTC.

2. Amelioration of corrective measures:

Reduction of disclosure scales and periods, exemption from disclosure, etc. (depending on the situation)

3. Presentation of award for outstanding companies:

Awards for exemplary companies and managers on Fair Trade Day

4. Permission to use the CCMS certification mark:

The use of CCMS certification marks on products, etc.

4 수요음악회 '암모암모' 공연



2007년 4월부터 재개된 수요음악회가 11번째를 맞아, 지난 5월 16일 암모암모 공연을 선보였다. 나폴리 사투리로 ‘가자, 가자’라는 팀명의 암모암모 공연은 진지하고 어려운 클래식 음악과 재미있는 연출을 접목하

여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음악회로 기존 클래식 공연의 격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이다. 특히 개그맨 전유성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유머를 결합하여 개그와 클래식 음악을 접목시킨 독특한 연출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요음악회에서는 ‘LOVE, LOVE 사랑을 전하세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 이벤트에 당선된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케익과 함께 이음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2인 무료쿠폰이 제공된다.

“Jammo Jammo” Performance at the Wednesday Concert

The Wednesday Concert, which was reinstated in April 2007, was held for the 11th time. On May 15, it showcased a performance of the show “Jammo Jammo.” The title, meaning “Let’s go,

let’s go” in the Neapolitan dialect, is a show that tempers the seriousness and abstruseness of classical music with entertaining presentation in order to render it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distinctive format, which combines classical music with comedian Yuseong Jeon’s humor and witty charm, has won widespread love from audiences.

The Wednesday Concert also featured a special event entitled, “Love, Love, Spread the Love!” Those selected during this event receive a one-of-a-kind cake and a dining coupon for two at the Eum restaurant.

5 유니베라 VOC (Voice of the Customer) 시스템 개발

유니베라는 CCMS(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지원 IT시스템인 VOC(Voice of the Customer)시스템을 개발한다. 고객의 소리를 소중히 기록하고 정보의 가치를 높여 기업경영과 고객만족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명칭은 COS(Customer Oriented Service)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올 11월 19일에 오픈 예정이다

Univera Develops the VOC (Voice of the Customer) System

Univera is developing the VOC (Voice of the Customer) system, an IT support system designed to aid the effective operation of CCMS. It faithfully records the comments of customers and enhances the value of information, thus facilitating both corporate manag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name of this new COS (Customer Oriented Service) was decided through an open contest among the staff and executives. It is scheduled to go into operation on November 19 of this year.

네이처텍 / Naturetech

6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방문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이승용 서기관 외 14명이 당사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GMP의 모델인 네이처텍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관리시스템과 에코넷 수직계열화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방문단은 모든 요소들이 철저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에코넷의 수직계열화 모델에 대해서도 우수하고 독특한 모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방문 목적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계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입장에서 아낌없는 수출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he Food Policy Te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isits Naturetech



On March 30, 15 representatives from the Food Policy Team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isited Naturetech, distinguished for its exemplary dedication to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The delegation, which included Secretary Seungyong Lee, took a tour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listened to a briefing on the management system and ECONET’s vertical integration model. The delegation was deeply impressed by the company’s meticulous and hygienic management of its resources; it profusely praised ECONET’s vertical integration model as outstanding and distinctive.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s visit was aimed at assessing the status of the health supplement industry and prepare policies for its improvement.

Its representatives affirmed that the ministry would lend unstinted support not only for the vitalization of the industry but also for the facilitation of the company’s exports, in order to aid in its advancement on the global stage.

7 서번트 리더십의 작은 실천 ‘사랑나눔회’ 활동



2006년 에코넷 하이난 워크숍을 함께한 네이처텍의 사원 12명은 “사랑나눔회”란 작은 모임을 만들어 지난 하이난 워크숍의 주제 중 하나였던 서번트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14일에는 충북 음성의 “향애원”이라는 고아원을 방문하였다. “향애원”은 9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사랑나눔회는 앞으로 2달에 한번씩 향애원을 방문하여 봉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네이처텍 벼룩시장”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향애원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A Modest Step in Servant Leadership: “The Love Sharers”



The 12 Naturetech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the 2006 Hainan Workshop has created a small group named “The Love Sharers,” which will actively practice the virtues of Servant Leadership discussed at the workshop.

On April 14, the group visited the “Hyangaewon” orphanage. This facility houses and shelters 94 children and youths between the ages of 3 and 20. The Love Sharers plans to visit the orphanage once every two months to offer volunteer services. In an effort to expand interest and support for volunteer activities throughout the company, the group plans to host the “Naturetech Flea Market” and donate all proceeds to Hyangaewon.

8 제 18회 “덕산체육대회”에서 응원상 수상



제18회 덕산체육대회가 네이처텍이 위치한 진천지역의 주요 회사, 기관 및 학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데 개최되었다. 올해 경기종목은 족구, 축구, 씨름, 배구, 계주였다. 네이처텍은 단합과 화합으로 응원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돼지 한 마리를 받았다. 한편, 진천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사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Award for Best Cheering at the 18th Deoksan Sports Games



The 18th Deoksan Sports Games was held amid the participation of prominent businesses, organizations, and schools in the Jincheon area, where Naturetech is located. The events at this year’s meet included soccer, wrestling, volleyball, relay, and jokgu (a variation of volleyball played with a soccer ball). Naturetech’s outstanding unity and cooperation won it the “Best Cheering” award, which was accompanied by a prize pig.

9 근로자의 날 “하나되는 네이처텍 한마당” 행사 실시



네이처텍 사우회 임원단은 지난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날인 4월 30일 진천 백곡테마공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하나되는 네이처텍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체육행사로 구성된 한마당 행사는 직원

들을 38명 4개조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뽀뽀릴레이,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축구, 계주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본 게임보다 더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응원전이었다. 팽과리, 카드섹션 등 다양한 도구들이 동원된 응원전은 직원들의 열정과 하나되는 네이처텍을 보여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

“Naturetech in Harmony” Event on Labor Day



In early observance of Labor Day, the leaders of Naturetech’s employee association held the “Naturetech in Harmony” event at the Baegkok Theme Park on April 30. The event, a sports event designed to promote camaraderie among the staff and executives, included 38 participants divided into four teams. It included various fun and games, such as the kiss relay, dodgeball, foot-baseball (a variation of baseball played with a soccer ball), tug-of-war, soccer, and relay. However, the cheering squads were even more enthusiastic than the competitors themselves: enlisting gongs, card sections, and other innovative tools, the cheering squads amply demonstrated the passion and harmony uniting the entire staff of Naturetech.

10 네이처텍 김영태 사장 ‘식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시상

당사의 김영태 사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제6회 식품안전의 날(07.05.14) 행사에서 식품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네이처텍을 포함한 에코넷이 자연의 선물인 천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처리과정과 최고의 연구기술력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국민의 건강과 산업의 발전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상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여하며,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Naturetech CEO Youngtae Kim Honored on Food Safety Day



At the 6th Food Safety Day ceremony hosted by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which took place on May 14, Naturetech’s President and CEO Youngtae Kim received the Prime Minister’s Commendation-the only such honor received by a member of the food industry. The award presented to Mr. Kim officially recognizes the fact that ECONET, including Naturetech, is improving the public’s health and contributing to Korea’s advancement by creating the highest-quality products from national botanicals using reliable processing methods and superior research; as such, it carries profound significance.

These awards are presented each year by the KFDA in recognition of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food safety.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1 중국 단양성 공산당 간부 방문

지난 3월 19일 중국 강소성 단양시 운양진 당위원회 경제사절단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당위원회 마경량(馬耿良)서기를 비롯 경제단체장, 기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방문은 당사와 긴밀한 기술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양시 소재 KOC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단양시 운양진 정부는 천연물자원이 풍부한 강소성 단양시와 당사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앞으로 양측의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

Visit from the CPC Danyang Delegation

On March 19, an economic delegation from the CPC regional committee in Danyang, Jiangsu Province of China, visited Unigen Korea. The visit, which included the committee secretary Gengliang Ma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economic groups and businesses, was made possible by the mediation of the KOC office in Danyang, which maintains close ties of technical collaboration with Unigen. The delegation conveyed the committee's earnest hopes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Unigen and the city of Danyang, which boasts a rich store of natural resources. Both parties agreed to expand the scale of their exchanges in future.

12 Supply Expo Japan 참가

당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일본 도쿄포럼에서 개최된 Supply Expo Japan 2007 일본건식 원료 및 OEM전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천연물 원료와 관련한 전문전시회로 개최 규모는 작았지만 내용은 알차게 구성됐다. 당사는 행사기간 동안 회사 및 제품소개 설명회를 가졌으며, 부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Supply Expo Japan 2007

Unigen Korea took part in Supply Expo Japan

2007, held over a two-day period from April 18 to 19 at the Tokyo Forum, and exhibited in the health food raw materials and OEM categories. The expo, which specializes in natural raw materials, was rich in content despite its small scale. During the event period, Unigen held informational sessions on the company and its products, as well as actively promoting the excellence of Unigen's offerings to those who visited the company's booth.

13 에스티로더사 경영진 방문



세계적인 화장품전문그룹 미국 에스티로더사 경영진이 지난 5월9일 당사를 방문하였다. Unigen 한국과 Unigen 미국 및 Econet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에스티로더사 경영진 방문은 그동안 Unigen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방문에는 에스티로더 그룹의 연구개발부 수석부사장인 Dr. Harvey Gedeon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부사장인 Dr. Michael Steiger이 방문을 하였다. 양사는 이번 경영진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교류를 갖기로 하였다.

Representatives from Estee Lauder Visit Unigen

On May 9, the management of world-renowned cosmetics group Estee Lauder paid a visit to Unigen Korea. The visit, which took place on the joint invitation of Unigen Korea, Unigen U.S.A., and ECONE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ementing the mutual trust built by the two

companies through the sharing of Unigen research results. The delegation from Estee Lauder consisted of the group's Senior Vice Presid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r. Harvey Gedeon and Asia-Pacific region vice president Dr. Michael Steiger. During the visit, Unigen and Estee Lauder affirmed their dedication to conducting more active R&D and marketing exchanges in the future.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14 제 2회 에코넷 미국 매니저 오픈 북 미팅



제2회 에코넷 미국 매니저 오픈 북 미팅이 4월 11일 수요일에 한 시간 반 동안 열렸다. 이 미팅에는 레이시의 매니저들뿐 아니라 텍사스에 있는 매니저들도 화상으로 참가했다. 미팅은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에코넷 회사들에 대한 동향에 초점을 맞췄다. 각 회사들의 보고 후에 데렉 홀 사장은 새로운 캠퍼스 개발 계획의 지연 이유가 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개발 지연에 대한 매니저들의 오해와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간 유익한 미팅이었다.

2nd ECONET USA Managers' Open Book Meeting

The 2nd ECONET USA Managers' Open Book Meeting was held on Wednesday, 4/11, for an hour and a half. The meeting was attended by not only the managers in Lacey but they were also joined via video by those who are in Texas. The meeting focused on the status of the corporation

in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Following each company's update, Derek Hall, Vice Chairman and CEO of ECONET USA, explained about the Gateway Project which has caused the delay of the New Campus Development. This explanation helped to resolve any confusion among managers.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asked and answered. It was an informative and well attended meeting.

15 성희롱 예방교육

민감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자 성희롱 방지 교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 가운데 지난 4월 3일 열렸다. 모든 직원이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3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열린 이 교육은 시애틀에서부터 초빙되어온 제니퍼 버크하트 변호사에 의해 유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다. 모든 직원이 직장 생활 내 성희롱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exual Harassment Avoidance Training

Mandatory Sexual Harassment Training sessions were held on April 3, 2007 to educate all employees on the sensitive issue of sexual harassment. There were three sessions offered to ensure all employee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attend.

Jennifer Burkhardt, an attorney from Seattle, facilitated the meeting in a manner which was both informative and easy to comprehend. Each employee left the meeting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behavior in the workplace.

16 전 직원 레이시 분기별 모임 '게일과 게리 쇼'

지난 3월 15일 에코넷 미국의 분기별 전 직원 모임이 레이시 사무실에서 열렸다. 모임의 부제인 '게일과 게리 쇼'에서 볼 수 있듯이 게일 메릿 스미스(인사부 과장)와 게리 대스트립(인사부 상무)은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사부가 제공

한 회사 정책 및 방향은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노마 가자 (알로콥 미국)의 18번째 입사 기념일이 발표되었을 때 전 직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타라 아담스 (에코넷 미국 홀딩스)는 1분기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상금과 함께 빛나는 왕관을 받았다. 각 회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임원들은 회사의 방향과 현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인사부는 회사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퀴즈 시간도 마련했다.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모임이었다.

Lacey Quarterly Employee Meeting (The Gail and Gary Show) on 3/15/2007



The ECONET USA quarterly employee meeting was held on Thursday 3/15 at the Lacey facility. As noted in the meeting subtitle "The Gail and Gary Show," Gail Merritt-Smith - HR Manager and Gary Dastrup - HR Director, presented a program which was both informative and fun. The information on company policies and procedures, along with fun facts implemented by the HR departments made the meeting very employee-friendly. When the 18th work anniversary was announced for Norma Garza (Aloecorp), she was given a standing ovation! Tara Adams (ECONET USA Holdings) was awarded a prize along with a shiny tiara as Employee of Quarter. Executive panels representing each company diligently explained about each company's direction and status. HR also set aside a time for a quiz to check employees' knowledge of company policies and procedures. As always, the meeting was not only

informative but entertaining, as well.

17 새 캠퍼스 개발 계획 레이시 게이트웨이 센터 개발 여파로 지연



에코넷 미국의 새 캠퍼스 공사 시작이 레이시의 게이트웨이 개발 프로젝트 여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연되었다. 에코넷은 공사 착공을 2008년 4월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새 캠퍼스 공사 일정의 지연으로 에코넷은 현재 레이시의 임대 건물에 25,000 스퀘어 피트를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직원들을 수용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New Campus Development Awaits Impact of the Lacey Gateway Center Development

Ground Breaking for ECONET USA has been delayed as the company await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impact from the new Lacey Gateway Development Project. ECONET continues to work toward a projected ground breaking which has been delayed until April 2008. As a result of the delays to the new campus ground-breaking, ECONET exercised an option for an additional 25,000 square feet to their existing rental facility in Lacey to house its growing employee population.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18 유니베라 미국 사우스헤이븐 가족들의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참여

2007년 5월 6일 데소토 카운티의 사랑의 집 짓기 운

동 본부는 추후 집 짓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유니베라 미국 사우스헤이븐 가족들은 걷기 대회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유니베라 가족들은 참가자 등록소, 생수 공급소, 중간 휴게소 등지에서 Ageless XTRA, Ageless Essentials 등의 샘플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물과 과일 등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다. 본 행사를 담당할 리 애쉬크로프트는 유니베라 가족들에 감사를 표했으며 추후 행사에서도 많은 자원봉사 참여를 당부했다. 본 행사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유니베라 가족들은 9월에 열릴 예정인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 짓기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Univera USA Southaven Employees Participated Habitat for Humanity



On Sunday, May 6th 2007, DeSoto County Habitat for Humanity held their annual Walk-a-thon to raise money for the next home building project. Univera USA Southaven employees partnered with local volunteers to serve the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walk. They served at registration, water stops, and rest stops to hand out samples of Ageless XTRA and Ageless Essentials as well as the needed water and fruit as refreshment. Lee Ashcroft, who coordinated the affair, thanked the employee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welcomed additional volunteers for future events. This activity brought such enjoyment to the employees that they expressed the desire to attend the September walk-a-thon as well as the home building project itself.

알로콥 미국(텍사스) / Aloecorp USA(Texas)

19 텍사스, 라이포드의 2007년 1분기 우수사원



힐탑 가든의 조경사인 사바스 겔브스가 텍사스 라이포드 지역에서 2007년 1분기 우수사원으로 뽑혔다. 사바스는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 탁월한 재능을 보여왔다. 꽃이 만개한 장미 정원이나 알로콥의 뜰을 따라 늘어선 돌담 등은 사바스가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의 작품이다. 사바스는 굳은 날씨나 갑작스런 계획 변경에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 올해로 벌써 10년째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바스! 이처럼 긍정적이며 친절한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운이 아닌가 한다.

Employee of the 1st Quarter 2007 in Lyford, TX.

Sabas Galvez, Landscape Gardener for Hilltop Gardens, was elected Employee of the 1st Quarter 2007 in Lyford, TX. Sabas is highly skilled and resourceful at solving problems for his department. He takes pride in his work; with results such as the rose garden covered in bloom and the stone wall along the Aloecorp patio. Sabas maintains an upbeat attitude through bad weather and changes of plan. He has been with the company 10 years! We are all very lucky to have such a positive and friendly co-worker on our team!

20 농장 회의

지난 3월 20일부터 21까지 양일간에 걸쳐 에코넷 산

하의 농장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련 회사들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에코넷의 근간인 농업부문에 대한 이해와 각 사간의 자료공유를 통해 우리의 철학인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Farming Summit

Executives of the companies engaged in the farming business of ECONET gathered together on March 20-21. It was a meaningful moment when they talked about how to realize the philosophy we share,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With understanding and the sharing of data about the agricultural sector of ECONET, this will not remain simply a philosophy, but will become a way of life.



함께 한 참가자 (회사)는 좌로부터, 중국어 통역사 원춘푸(알로콧 중국), 리 리(알로콧 중국), 데릭 홀(에코넷 미국), 김동식(유니젠 한국), 구원모(유니젠 러시아), 피터 해퍼먼(알로콧 미국), 제리 필그림(힐탑가든), 리건 마일즈(유니젠 미국), 왕인통 박사(알로콧 농장 고문), 조셉 김(알로콧 미국), 에반 모일란(알로콧 미국), 에네스토 살가도(알로콧 멕시코), 마크 사이먼(힐탑가든), SJ 한(알로콧 중국), 에드윈 프랭크(힐탑가든), 제임스 맥인니스(힐탑가든)

Participants from left.

Chinese translator, Chunfu Weng (Aloecorp China), Chengli Li (Aloecorp China), Derek Hall (ECONET USA), Dongsik Kim (Unigen Korea), Wonmo Ku (Unigen Russia), Peter Hafermann (Aloecorp USA), Jerry Pilgrim (Hilltop Gardens), Regan Miles (Unigen USA), Dr. Yin-Tung Wang (Aloecorp Farm advisor), Joseph Kim (Aloecorp USA), Evan Moilan (Aloecorp USA), Ernesto Salgado (Aloecorp Mexico), Mark Simon (Hilltop Gardens), SJ Han (Aloecorp China), Edwin Frank (Hilltop Gardens) and James McInnis (Hilltop Gardens)

21 힐탑 가든의 제리 필그림 상무 정년퇴직



힐탑 가든 상무 제리 필그림이 근무 17년을 마감하며 2007년 5월 1일자로 퇴직할 것임을 발표했다. 제리는 1989년 12월 11일 이래로 에코넷 가족의 일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알로콧과 힐탑 가든의 성장과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힐탑 가든 이사회의 고문 역할로 남게 될 것이다. 에코넷은 제리가 재직 중 보여준 기여와 헌신에 항상 감사할 것이다.

Jerry Pilgrim, VP, Hilltop Gardens, retire effective May 1, 2007.

After 17 years of service, Jerry Pilgrim, VP, Hilltop Gardens, has announced that he will retire effective May 1, 2007. Jerry has been with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since December 11, 1989. Jerry has been instrumental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and as such he will remain on the Board of Hilltop Gardens on an advisory basis. The ECONET will be forever grateful for the positive contributions and commitments made by Jerry during his career.

22 새로운 BSC 참가자들



김석원(Greg Kim)차장의 강도 높은 BSC 트레이닝 후, 힐탑가든(Hilltop Gardens) 가족들은 그들의 첫 BSC를 끝냈다. 우리는 슈퍼바이저들과 함께 자신들의 BSC를 검토 후 서명하면서 BSC를 끝내고 있는 힐탑가든 가족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두 목표를 이루어 반드시 연말 보너스를 얻겠다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알로콧 멕시코의 경영팀 또한 BSC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도 첫 번째 BSC가 된다.

New BSC Participants!

After extensive training provided by the BSC king, Greg Kim, the employees at Hilltop Gardens completed their very first BSC. We captured the Farm Workers signing as they reviewed and signed off on their BSCs with their supervisors. Although establishing their initiatives was not an easy task, they look forward to accomplishing their goals in order to attain their bonus potential at the end of the year.

The Management team in Aloecorp Mexico was also introduced to the BSC program.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ey participate in the BSC program as well.

알로콧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23 1분기 회의



지난 4월 16일에는 알로콧 중국과 남양 중국 간의 1

분기 회의가 완닝 농장에서 있었다. 이 회의의 내용과 목적은 첫째, 미국에서 열렸던 2007년 팜서밋(Farm Summit)에 대한 농장장의 소개와 둘째, 2007년 전략목표에 기초한 각 부서의 1분기 진척상황을 보고 및 점검이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1st quarter meeting

On April 6, 2007, Aloecorp China and Namyang China held the 1st quarter meeting on Wanning Farm,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is meeting, firstly, is to share the farm manager's introduction about 2007 Farm Summit in USA. And secondly, to get to know and check each department's actual accomplished conditions of the 1st quarter based on 2007 Strategy and Goal. This meeting made clear to us that we should do our utmost to achieve our goal in next quarter.

ECONET
Subsidiary News

신입사원 / New Hire



▲ 김태갑 사원,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Taegap Kim General Magement Division, Strategy Planning Team, Naturetech



▲ 제니퍼 라이트, Sales & Training 코디네이터/
Jennifer Wright, Sales and Training Coordinator



▲ 니콜 디아즈, 프린트 코디네이터, 바이어/
Nicole Diaz, Print, Coordinator, Buyer



▲ 알리사 리베라, 마케팅 상무보/
Alicia Rivera, Director of Marketing



▲ 마리아 로페즈, 회계 직원/
Maria Lopez, Unigen Staff Accountant

승진 / Promotions



◀ Univera USA
아만다 데이비스, 유통부서 직원 ⇨
임원보조
Amanda Davis, Distribution Clerk ⇨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Promotions

부서이동 소개 / Transfers



▲ 지연 류, 유기 합성물 화학자/
Jiyeon Liu, Organic Synthetic Chemist



▲ 말렌 아빌라, 품질관리 담당/
Marlen Avila, QC Analys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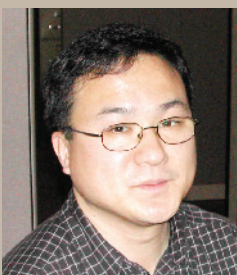
▲ 호세 구즈만, 선적 담당/
Jose Guzman Jr Shipping Receiving Clerk



▲ 왕 신, 장비관리, 공장, 알로큘 중국/
Wang Xin, Equipment Manager, Factory, Aloecorp china



▲ 덩 이웬, 생산관리, 공장, 알로큘 중국/
Ding Yiwen, Production Manager, Factory, Aloecorp china



◀ ◀ 김석원, 경영전략 매니저, 에코넷 미국 홀딩스 ⇨
웰리스, 신규사업 개발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Greg Kim, Manager of Strategy, ECONET USA Holdings ⇨
Manager of Wellness/New Business Development, Univera USA



▶ 루이 링크, 물류센터 직원 ⇨ 유통 부서 직원
Louie Link, Warehouse Staff ⇨ Distribution Clerk

Transfer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 축하합니다.
지난 5월 27일 경영정보팀 윤석훈 대리의 귀여운 딸 현지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On May 27, Assistant Manager Seokhoon Yoon (Management Information Team) celebrated the first birthday of his lovely daughter, Hyeonji.

네이처텍 / Naturetech

◆ 결혼을 축하합니다.



1) 지난 3월 17일 품질혁신팀 조운혜 사원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New Hire



▲ 마이클, 영업사원, 영업팀, 알로큘 중국/
Michael, Sales representative, Sales Team, Aloecorp china



▲ 토니 쟁, 영업사원, 영업팀, 알로큘 중국/
Tony Zeng, Sales representative, Sales Team, Aloecorp china



▲ 빈첸트 탕, 영업관리, 영업팀, 알로큘 중국/
Vincent Tang, Sales Manager, Sales Team, Aloecorp china



▲ 후 웨이, 전기기사, 엔지니어링, 남양 중국/
Wei Hu, Electrical Engineer, Engineering, Namyang China



▲ 후 핑, 토목기사, 엔지니어링, 남양 중국/
Hu Ping, Civil Engineer, Engineering, Namyang China



2) 6월 17일 청주 한마음웨딩홀에서 경영지원팀 윤성원 대리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1) Congratulations on the marriage of Yunhye Jo (Quality Innovation Team) on March 17.

2) Best wishes for the wedding of Assistant Manager Sungwon Yoon (General Management Dept Team), which will take place on June 17 at the Hanmaeum Wedding Hall.

◆ 출산을 축하합니다.

1) 지난 4월 1일 1시 37분 품질혁신팀 채진희 주임의 첫아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2) 지난 5월 4일 금요일에 영업1팀 박종민 대리의 첫딸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 Congratulations (Births)

1) At 1:37 on April 1, Senior Staff Jinhee Chae(Quality Innoveation Team) gave birth to her first son.

2) On Friday, May 4, Assistant Manager Jongmin Park (Sales Team 1) greeted his first daughter.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결혼을 축하합니다.



1) 지난 5월 6일 마케팅기획팀 김종수 대리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2) 6월 9일 마케팅본부 BM팀 변인숙 대리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1) Best wishes for Assistant Manager Jongsoo Kim (Marketing Planning Team) on his recent wedding, which took place this past May 6.

2) Best wishes for Assistant Manager Insook Byeon (BM Team) on her wedding, which will take place on June 9.

◆ 출산을 축하합니다.

1) 지난 5월 7일 교육팀 이현주 대리의 첫 아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2) 지난 5월 10일 중부영업팀 김효재 대리님의 둘째 따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3) 지난 5월 20일 경인영업팀 박석신 사원의 둘째 딸(박채정)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Births)

1)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Hyeonju Lee (Education Team) on the birth of her first son on May 7.

2)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Hyojae Kim

(Jungbu Sales Team) on the birth of his second daughter on May 10.

3) Congratulations to Seokshin Park (Kyungin Sales Team) on the birth of his second daughter on May 10.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4월28일 교육본부 교육팀 이민영 사원의 조모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We extend our condolences to Minyoung Lee (Education Team), whose grandmother passed away on April 28.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3월 23일 후안 살다나 Plant Manager의 세번째 손자, 마일즈 마테오 포스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Births)

Congratulations on Juan Saldana's (Plant Manager for Aloecorp USA) 3rd grandson, Miles Mateo Foster. The baby was born March 23, 2007. He was 8lb 2oz and 20 inches long.

힐탑 가든/ Hilltop Garden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힐탑 가든의 조경사인 Sabas Galvez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Sabas Galvez의 모친께서 2007년 4월 11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Sara Galvez여사는90년대 초 알로

콥 농장에서 수년간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Galvez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mother of Sabas Galvez, Landscape Gardener for Hilltop Gardens, passed away on April 11, 2007 at age 75. Mrs. Sara Galvez also worked for several years at the Aloecorp Farm in the early 90's. We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Galvez family.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4월 4일 코코가 몸무게 5kg의 귀여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르다”는 의미인 “자오자오”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 Congratulations (Births)

Congratulations to Coco on the birth of her daughter, born on April 4, 2007 (weight: 5 kg). She was born much earlier than expected, so she was called “Zao Zao,” meaning “early” in Chinese.

Happy Birthday

생일자 소식 06~ 07

Birthday in June & July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 6/28 이병훈
Bill Lee



◆ 7/19 김기두
Kidoo Kim

네이처텍
Naturetech



◆ 6/2 박상순
Sangsoon Park



◆ 6/3 김경주
Kyungju Kim



◆ 6/5 조영심
Youngsim Jo



◆ 6/9 방지영
Jiyoung Bang



◆ 6/11 정봉수
Bongsu Jung



◆ 6/12 노금례
Kumrye Noh



◆ 6/14 허영주
Youngjoo Heo



◆ 6/14 최병석
Buongseok Choe



◆ 6/16 김명옥
Myungok Kim



◆ 6/18 박동규
Dongkyu Park



◆ 6/19 문성민
Mike Moon



◆ 6/20 천창식
Changsik Chun



◆ 6/22 주혜련
Heuireun Ju



◆ 7/1 박정선
Jungsun Park



◆ 7/9 조정임
Junglim Cho



◆ 7/11 이추월
Chuwol Lee



◆ 7/11 위영숙
Youngsuk Wee



◆ 7/19 박미애
Miyea Park



◆ 7/31 김진영
Jinyoung Kim



◆ 6/2 진찬숙
Chansuk Jin



◆ 6/11 김효재
Hyojae Kim



◆ 6/22 이현주
Hyunjoo Lee



◆ 6/23 김근오
Guenoh Kim



◆ 6/23 서성봉
Sungbong Seo



◆ 6/24 김기자
Kija Kim



◆ 6/26 이경원
Kyeongwon Lee



◆ 7/1 박정아
Jeongah Park



◆ 7/7 이원석
Wonseok Lee



◆ 7/9 고정민
Jeongmin Go



◆ 7/15 박정호
Junggho Park



◆ 7/18 김소연
Soyoan Kim



◆ 6/27 김희양
Heeyang Kim



◆ 6/30 도선길
Seongil Do



◆ 7/4 고진숙
Jinsook Ko



◆ 7/18 장미라
Mira Jang



◆ 7/25 김미란
Miran Kim

Happy Birthday



◆ 6/10 성한용
HY Sung



◆ 6/11 데렉 넬슨
Derek Nelson



◆ 7/1 데이브 프레데릭
Dave Freder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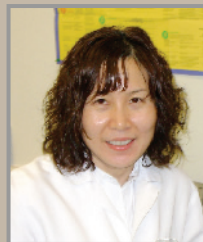
◆ 6/19 리건 마일즈
Regan Miles



◆ 6/29 윈윈 마
Wenwen Ma



◆ 7/2 테리 오라일리
Terry O'Reilly



◆ 7/8 정미정
Mijeong Jeong



◆ 7/28 핑 자오
Ping Jiao



◆ 6/2
낸시 포피엘라직
Nancy Popielarczyk



◆ 6/6 진 메이빈
Jean Maybin



◆ 6/9 사라 루버트
Sarah Rubbert



◆ 6/12 타라 모세즈
Tara Moses



◆ 6/17 데이브 내쉬
Dave Nash



◆ 6/18 게일 메리트-스미스
Gail Merritt-Smith



◆ 6/20 루이 링크
Louie Link



◆ 6/29 니콜 라슨
Nicole Larsen



◆ 7/1 스티븐 처니스키
Stephen Cherniske



◆ 7/13 안젤라 베이론
Angela Bayron



◆ 7/17 데이브 플레밍
Dave Fleming



◆ 7/20 라터렐 클라인
LaTerrell Cline



Happy Birthday



◆ 6/16 후안 살다나
Juan Saldana



◆ 6/24 후안 아우마다
Juan Ahumada



◆ 7/11 새넌 존스
Shannon Jones



◆ 7/13 신디 로즈나우
Cindy Rosenow



◆ 7/20
에스메랄다 이니그에
Esmeralda Yniguez



◆ 7/28 조 퀴논
Joe Quinones



◆ 7/28 마크 사이몬
Mark Simon



◆ 6/9 구원모
Wonmo Koo



◆ 6/19 프로토프포바
올가 아나토리에바나
Porotopopova Olga
Anatolievna



◆ 6/1 수 후아
Su hua



◆ 6/4 프랭크 자오
Frank Zhao



◆ 6/21 헬렌
Helen



◆ 6/23 줄리아
Julia



◆ 7/17 게리
Gary



◆ 7/26 제임스
James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Naturetech

• 6/17 조은성 Eunsung Jo

▶ Univera Korea

• 6/21 안성민 Sungmin An
• 7/25 천현직 Hyunjig Chun

▶ Univera USA

• 6/6 리사 스테거 Lisa Staiger

반대되는 것을 비교하는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각 사에서 응모한 사진을 에코네시안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로 뽑은 것입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도 다음 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Photo Contest

1위 고목나무에 매미

덩치가 큰 아빠에게 매달린 귀여운 작은 아기

응모하신 분 : 김효재 대리, 중부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Winner A Tiny Locust on an Old Tree

A tiny, adorable baby locust hangs onto her XL-size daddy.

Submitted by : Hyojae Kim, Jungbu Sales Team, Univera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Winners of the ‘Drastic Contrast’ Photo Contest

The winners of the June photo contest were decided by prior vote among the entries from various subsidiaries. ECONETians who did not get to participate in the latest vote are invited to take part next time.



2위 아름다운 생

86세의 할머니와 생후 6개월 된 조카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행복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의 날개만큼 아름답다.

사진속 주인공 : 에스테반 구즈맨, 프로덕션 매니저,
알로콧 미국

응모하신 분 : 사라 월, Tax Accountant, 유니베라 미국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A Beautiful Life

The picture is of my grandmother, who was 86, and my nephew, who was 6 months old. This picture demonstrates how precious life is happiness is brought on by family and loved ones. My grandmother’s smiling face was as beautiful as the wings of an eagle soaring through the sky.

Submitted by: Sarah Wall, Tax Accountant,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공동 3위 조용한 아침과 황야의 서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지구의 반대편에서 자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서로의 아름다움이 상대방으로 인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응모하신 분 : 이세현,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에코넷 미국 홀딩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ird Prize Prize

The Morning Calm and The Wild West

At least that’s how people used to think. We started from different sides of the world, but are here right next to each other. Contrast is fascinating; not because they ar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because they make each other’s beauty stand out.

Submitted by :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ECONET USA Holdings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공동 3위 작은 고기 큰 고기

낚시를 가서 잡은 작은 고기와 큰 고기가 비교됩니다.
응모하신 분 : 유후재 조장, 생산기술팀, 네이처텍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ird Prize Prize *Big Fish, Little Fish*

Marvel at the contrast between the puny little fish and the big, hefty fish caught on a fishing trip.
Submitted by : Hujae Yu,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아차상1 여보, 아이들이 또 작아졌어요!

시애틀의 퍼시픽 사이언스 센터에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우리집의 식탁이 이렇게 커서 우리 애들 (스테션, 시에라 & 세바스찬)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한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모하신 분 : 새논 존스, 상임 회계원, 알로콧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Oops! Honey I shrunk the kids, again.

What a fun day we had at the Pacific Science Center in Seattle. If only our table at home was this cool, I could get all the kids (Stetson, Sierra & Sebastian) to sit together in peace.

Submitted by : Shannon Jones, Senior Accountant, Aloecorp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2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이지만 안 닮았네요^^

응모하신 분 : 문성민 과장, SCM팀, 네이처텍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Father and Son*

These two are father and son, but they don't look at all alike.

Submitted by : Seongmin Moon, SCM Team, Naturetech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3 심통 난 아이와 결혼식 ‘내 웨딩 케익은 어딴지?’

내 막내딸이 누군가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인데 꽤나 화가 난 모습이다.
그래서 심통 난 아이와 결혼식이라 이름 붙였다.

응모하신 분: 세드리 멘 스몰,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Mad child at a wedding reception: “Where’s my wedding cake?”

The picture is of my youngest daughter at a wedding reception and she is not so happy. I call it “Mad Child at a Wedding Reception.”

Submitted by : Cedric M. Small,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4 어미와 새끼

비치는 농장에서 직원들이 기르는 개들 중 하나다. 우리가 비치를 보러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할 정도로 비치는 착하고 온순하다. 비치는 두 번에 걸쳐 15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는 그런 비치를 ‘위대한 어머니’ 라고 부른다. 이 사진은 비치가 새끼를 낳은 후 몇 시간 뒤에 찍은 것이다.

응모하신 분: 셴 싱이, 엔지니어, 남양 중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4 *Old and Young*

The bitch is one of the dogs bred by the workers on farm, she is tender and gentle, always wags her tail excitedly without stopping when we go to the farm to see her. She littered twice together, we call her “a hero mother” for her 15 pups. This photo is taken after she littered several hours later.

Submitted by: Shen XingYi, Engineer of Namyang Chin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06월호 퀴즈 & 04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 L'initie PhytoWhite)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선케어 프로텍터를 드립니다.)
- 헤더 맥멀렌, 다이아몬드 지원 & 제품 전문가, 유니베라 미국
 - 앤젤 디 씨라노, 2개국어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안젤라 베이런,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제니퍼 김, 인사부 직원, 에코넷 미국 홀딩스
 - 로잘린다 로살레즈, 배송 및 수령 보조, 알로콧 미국
 - 맨디 리, 영업 코디네이터, 영업부, 알로콧 중국
 - 김정주, 화장품 자재담당, SCM팀, 네이처텍
 - 박지연,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 고진숙,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 곽은정, 기획인사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 ▶ 6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8page에 있습니다.
- ▶ 2007년 8월호에는 에코넷에서 나오는 제품과 에코네시안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외출하기전 섰크림을 바르고 있는 장면이나 휴대하고 다니는 장면)
- 1등: 150,000원 상품권(1명)
 - 2등: 100,000원 상품권(1명)
 - 3등: 50,000원 상품권(1명)

04월호 ECONET Way 퀴즈!

1. 신제품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 총 4가지 품목은 무엇일까요?
2. ()는 홍삼 유효 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주요 기능성분인 9가지의 진세노사이드가 표준화되어 원기회복 및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홍삼 사포닌을 흡수가 잘 되는 사포닌 대사로물로 변화시켜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적화된 효능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인 홍삼 제품이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84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 응모하신분들중 당첨자에게는 신제품 리니시에 이퀄라이징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 품목중 1가지를 드립니다.

June Quiz and Winners of the April Quiz

Answers to the April quiz (L'initie PhytoWhite)

- ▶ Winners of the Appril Quiz (The L'initie PhytoWhite Suncare Protector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s.)
- Heather McMullen, Diamond Support and Product Specialist, Univera USA
 - Angela Bayron, Customer Care, Univera USA
 - Rosalinda Rosalez, Shipping & Receiving Assistant, Aloecorp USA
 - KJ Kim, SCM Team, Naturetech
 - JS Ko,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Angel D. Serrano, Bilingual CCR II, Univera USA
 - Jennifer Kim, HR Representative , ECONET USA Holdings
 - Mandy Li, Sales Coordinator, Sales Department, Aloecorp China
 - Jiyoun Park, Sales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EJ Kwak, Asistant Manger, Planning & HRMT, ECONET Korea Holdings
- ▶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our June issue are announced on page78.
- ▶ For the August 2007 issue, please submit photos featuring ECONETians alongside ECONET products.
E.g. A picture of an ECONETian applying UV sun cream before going out or carrying it on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 (1 person)
 - Thi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 (1 person)

June ECONET WAY Quiz

1. What are the four products of the new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line?
2. () contains a wide spectrum of active ingredients that are extracted from red ginseng. More importantly, it standardizes the nine types of ginsenoside, which comprise red ginseng's main active ingredient. Such advantages make Red Ginseng Tonic Gold exceptionally effective for restoring stamina and promoting overall health. In addition, the saponins in red ginseng have been converted to saponin metabolites, which are easily absorbed into the body. Thus, this scientifically-enhanced red ginseng tonic dramatically raises the rate of absorption and enables anyone, regardless of their constitution, to reap its optimal effects.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 Page 84,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 A product from the new L'initie Equalizing Base Makeup line will be awarded to randomly selected entries.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 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또는 84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에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에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Page 84,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김경미 대리, 전략기획팀, kkmimi99@univera.com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trategy & Planning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밥 풀턴, 지역사회 봉사 코디네이터
Barb Fulton,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타라 아담스, 인사부 보조
Tara Adams, HR Assistant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콥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콥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콥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univera



L'initié
PhytoWhite



파이토 화이트를 만난 그녀, 하얀 빛에 물들다

리니시에 파이토 화이트 라인
천연 미백 약용 식물 성분이 4단계 솔루션을 통해
피부 미백을 실현하는 스페셜 케어 라인입니다.

Skin Healing Program - 리니시에